朝鮮日報 夕刊 一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新經濟體系의 出現과 民衆

新情勢에 對應할 準備가 잇느냐?

一

지난 朝鮮産業經濟調査會의 結果로 朝鮮에 經濟的 新體系가 出現할것은 거이 確定的 事實이다. 主催側인 總督府當局의 開會辭에 잇서서나 參集한 委員들의 答申案에 잇서서나 朝鮮經濟를 從來의 農業偏重主義, 食糧供給地로서 存置치안코 日滿經濟블럭의 聯結體로서 原料工業地化하라는것은 明瞭히 나타낫다. 茂山鐵鑛, 江原道石炭의 開發, 鴨綠江水力電氣의 發電, 팔프工業, 無水알콜, 飼羊, 棉花增殖의 獎勵, 金融機關의 整備, 鐵道網의 促進, 實業敎育의 擴充等은 這間의 消息을 窺知할수잇다. 따라 從來 産物의 大宗이든 農産物대신에 工産物이, 農業投資額대신에 工業投資額이, 農業人口대신에 工業人口가 主位를占할날도 멀지 안흘것이다.

二

이와가티 朝鮮의 産業經濟는 原始的 農業第一時代로부터 農工併進時代 或은 原料工業時代로 轉換하려하거니와 朝鮮의 民衆은 이에 對處할 準備와 覺悟를 가젓는가. 우리는 過去産米增殖計劃時代에 잇서서 未墾地及 干潟地의 拂下및 土改事業에 對한 補助 其他로써 若干의 大富豪를 냇지만 만흔良田沃畓이 水組區域에 編入되어 收支不償을 當한 地主를 만히보앗다. 黃金狂時代라 稱하리만큼 産金을 獎勵할 時代에 數百萬, 數千萬의 長者를 幾個人 냇지만 零細한 資本을 가진 投機家들이 探鑛費, 出願費等으로 莫大한 金錢을 水泡에 歸케한 일이 잇다. 將次올 原料工業時代에 잇서서도 國策工業에의 補助, 獨占的 大企業에 依한 利潤의 擴大等으로 猝富가 생길境遇도 만켓지만, 醇厚한 農村人의 都市又는 鑛山에의 轉出, 無保障한勞働에 依한 勞働者의 酷使, 原料供給에 依한 農村의 疲弊, 大企業에 依한 中小工業의 被壓이란場面도 想像안흘수 업다. 卽 獎勵政策으로 保護를 밧는 部門과 打擊을 밧는 部門이 잇는것을 생각치 안흐면 안된다.

三

누구나 富하고 勝하기는 조화하되 貧하고 敗하는것은 실어하는것이다. 오는 時代에 잇서서는 새經濟體系에 適應할 企業을 하랴할것은 거이 抱懷한 理想일것이다. 그러나 如上의 資源開發, 動力發展, 大規模의 原料工業企業에 無資本, 無技術, 無經驗한 이가 參與할수업슬것은 明若觀火다. 吾人은 새로 올 經濟時代가 當局의 言明한바와가티 企業的 打算과 資本의 利潤如何를 超越하야 國民經濟全體의 利益을 爲하야 實現될것을 希望하거니와 朝鮮人과가티 資本이적고 技術者가 적고 國家行政에 精通할機會가적은 이에게는 如上의企業은 거이 바라보기 어려운것이다.

四

그러나 再考하면 現實을 悲觀코 袖手傍觀한다 할지라도 自動치 안는者를 天은 助할바이 아니다. 小資本일지라도 結合하고 技術者를 養成하며 政策內容을 精査하야 吾人도 新經濟體系에 處할 覺悟와 計劃이 잇지안흐면 안된다. 이미 過去 民衆의 愚昧한 때에도 一部의人은 富를 增殖하얏다. 今日과 가티 民衆의 敎育이 普及되고 民衆을 떠나 생각할수업는 産業政策을 實施하는 今日에 잇서서랴. 오직 生存競爭과 生活意識이 强하고 이것을 爲하야는 協心、努力、合資努力을 大衆들만 잇다면 오는 新經濟時代에도 能히 生存할수가 잇슬것이다.

須磨總領事歸任으로 南京空氣大緊張

川越、張群第七次會談은 二日?

日中交涉最後段階에

【南京三十一日發同盟】日中交涉의 進展에關하야 外務省과 重要協議를遂하고 有田外相의 新訓令을 携行歸來한 須磨南京總領事는 上海서부터 若杉參事官 吉岡二等書記官 曾根三等書記官을同道로 三十一日午後 七時二十分着列車로 南京에歸任, 總領事館員等의 出迎을바더 總領事館에入하야 곳川越大使와 會見 一切를 復命하고 有田外相의訓令을 傳達하야 今後의 對策에關한 協議를遂하엿다 一日川越大使以下 大使館首腦部並 雨宮、中原 陸海軍 兩駐在 武官等과 現地 會議를開催, 須磨總領事로부터 本省의方針을 詳細說明하고 此에 基하야 川越、張群第七次會談에對한 日本의 最後的態度를 協議決定할터로 그結果 川越張群第七次會談은 二日에行하게될모양이다 그리하야 日中交涉은 드듸여 最後段階에 達한모양으로 南京空氣는 非常한緊張을 呈하고잇다

秩父宮同妃兩殿下 卅一日御歸東

【東京電話同盟】英國皇帝戴冠式에 御名代宮으로서 御參列하실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天皇皇后兩陛下께 御禮를 言上하실次 三十一日午後八時二十六分 上野驛御着 御歸東하시엇다 兩殿下께서는 곳赤坂表町의 御殿에드르시엿는데 宮中事情을 무르신後 近近御參內 兩陛下、皇太子殿下께 天機並御機嫌을 奉伺하시고 今回의 御使命에 對하야 御禮를 言上하시는 同時에 英國을 爲始하야歐米諸國御巡遊의 御事에關하야 勅許를 仰하실御豫定으로 拜承하다 御滯東은 約一週間 御豫定인대 그間御渡歐의 準備를하실모양이시다 또殿下께서는 近近 參謀本部附로서 東京에 御轉補하시리라고 拜承한다

內田前鐵相取調 十五時間續行

再次召喚取調後訴續決定乎

再燃한國鐵疑獄事件

【東京電話同盟】再燃한 國鐵疑獄에關하야 三十一日午前七時五十五分任意出頭의 形式으로 東京地方檢事局에 召喚된 前鐵相內田信也氏는 臨時取調室로된陪審院宿舍二階의 一室에서 有安次席 馬場主任兩檢事의 取調를 바덧는대 事件이 極히複雜微妙하므로 取調를 進行한結果 意外에 時間이만히걸여 午後도아즉끗이못나고 午後六時一旦夕飯을 먹은後 다시續行 午後十一時二十分에 이르러 前後十五時間에 及하는 取調를終了하엿다 疲勞한 內田氏는 마중간 自動車에안저 麻布三河臺의 自邸에 도라왓다 取調의 內容은 極秘에 附하나 當局으로서는相當한 確信을 어든모양이며 再次召喚取調를 行한後 訴願이 決定될模樣이다

內田氏取調內容

【東京電話同盟】前鐵相內田信也氏는 前後十五時間에亘한 峻烈한取調를 바든後 三十一日午後十一時二十分歸宅하엿는데 同氏가 召喚된點은 今春의 總選擧에 土木協會로부터贈한것은 昭和會行의 十萬圓이아니라 昭和會가 結成되기前 卽昨秋 茨城縣議의選擧直前의 茨城新生俱樂部獻金名義로 贈한 델리케이트한性質을 가진 五萬圓事件이니만치 取調는 微妙하야 이미贈賄者로서 强制收容된 飛島、難波兩氏의 供述에 基하야 同氏가 果然 問題의 五萬圓에關與하엿잇느냐 아니냐를 糾明하는것이다 內田氏는 問題의金錢은 茨城縣選出의 某代議士로부터 難波氏를 通하야 受取하엿스나 그金錢授受에는 何等關與하지안헛다고否認하엿다한다 또同氏의此種 取調는 全部終了하엿스므로 一日係檢事는 日曜日임에 不拘하고 同氏의聽取書를 補正하야 二日檢察首腦部會議에 提出後 다시來四日飛島 難波外二氏의强制收容期間滿了까지 再次內田氏를召喚하야 最後的決定을할터이다

世界短信

獨、伊에合併承認

찬노 伊外相이 獨逸을訪問하야 獨伊協力策을 商議한 結果 十月二十四日 獨逸政府는 伊太利의 에디오피아合併을 正式으로 承認하엿다고發表하엿다. 이것은 짐작할것도업시 聯盟이 固持하여나오는 侵略結果의 不承認政策을 全面的으로 否定한것으로 獨逸이 聯盟國이아닌 關係上他의聯盟國에 미치는影響이 直接的은아니라할지라도 墺地利、匈牙利、루매니아等中小的國家의 追從을 誘導하는 機會가될것으로 보이는만콤 獨逸로서는 當然한 處事라할지라도 國際聯盟에對하야는 새로운難關의 出現이라고아니할수업다.

中國要人楊氏被殺

湖北省主席인 同時에 國府內의 一方의 巨頭인 親日派政客中의 의일은바 楊永泰氏는 十月二十五日 武昌으로부터 漢口로 라오는途中 埠頭에서 獨立第三十七旅의 士官 陳某에게 狙擊되야 死去하엿다. 이暗殺은 汪精衛氏唐有壬氏狙擊과 同一한性質을 가진것이니 極端의 對日抗戰論을主張하는 一派들이 對日接近運動을 阻害하기 爲하야演行된것이다 이에漢口駐在三浦總領事는 卽日武漢綏靖主任何成濬氏를 訪問하야 日本居留民의保護에 關聯하야 注意를喚起하엿다

蘇反幹部事件擴大

蘇聯邦에서 發生한 지노비에프、카메네프等反幹部事件에 關聯한 連累者는 아직도繼續取調中에잇는데、二十五日의 巴里의 푸리파리칸紙의 莫斯科電은 左의 巨頭가 被告로서 取調를 밧고잇다고 報道하얏다 코르니고프(前駐英大使)우그라노프(前勞働人民委員)세레오아코프(前交通人民委員)제리그리코프女史(소코르니코프氏夫人)아룩스(前國立銀行理事)부트노將軍(前駐英大使館武官)칼•라데크(이즈베스치아紙主筆)라엡스키(쯔르날•드모스코紙主筆) 비아다코프(前國立銀行總裁)等이다

英米中間航空協定

米中航空連絡을 中心으로하야 米中當業者와 英國側香港當局側과 折衝中이든바 最近에原則的協定大綱이 成立되엿다한다 이것은 列國의對中航空進出에對하야 中國側이 保障을與한것이라하야 在中官憲으로서는 重大한關心을 가지고잇는데 協定骨子는 一、米中航空連絡은 桑港、上海間으로 一、其中汎太平洋會社所屬機는 桑港香港間을連絡하고 香港上海間은 中國航空公司가擔當한다 一、英國은 香港에 米中航空連絡을爲하야 에ー어포ー트格納庫其他必要한 一切의 設備를行할것을 承認함 그리고 全線의連絡開始는 數個月後에 實現하고 上海、香港間만은 十一月一日부터 實施한다는것이다.

西動亂과不干涉會

마드리드 進擊中의 叛軍에對하야 二十九日부터 政府軍은反擊을始作하엿다、卽政府軍은首都籠城의 決意를 굿게하고 가바레로 首相의激勵로 二十九日부터 全線에亘하야 空軍과戰車援護下에 決然反擊을 試한結果、二十九日 正午에 로레혼데、베라스코、세세라等의 各要衝을奪還하엿다고한다 그러나 叛軍은 一週內에 마드리드에 入城하겟다고 豪語하고잇다 一方二十八日 倫敦에서열린 對西不干涉 委員會 本會議에서는 蘇聯代表 마이스키氏는「行動의 自由」를 聲明하야 不干涉委員會의 事實上 消滅을 暴露하얏다 聲明의 內容은「獨伊가 不干涉協約을 無視하고 叛軍을 後援하는以上 蘇聯은現行 國際法과 國際秩序에依하야 西班政府를 支援하겟다」는것이다 歐洲의左右兩陣營의 對立은더욱 尖銳化하여간다.

地中海를制覇코저 伊海軍大擴充!

海兵을一擧에十萬으로增加

英伊兩國海軍對抗戰

【羅馬三十一日發同盟】伊政府는 英海軍에對抗、地中海制覇를 目標로 躍起하야 海軍擴充을 行하고잇는데 다시 艦隊兵員의 增加를 決定하엿다고 確聞되다 政府는 曩者海軍兵員五萬을 地方에增加하엿을뿐아나 近近此를 一擧十萬에 擴充할 意向이다

蘇聯代表再反駁

不干涉委員會難免

【倫敦三十一日發同盟】蘇聯代表 마이스키ー大使는 三十一日不干涉委員會議長프리마드卿에 對하야 獨伊兩國代表의 非難을再次反駁한 一個의通牒을提出하엿다 通牒要旨는 如左하다

一、獨伊兩國政府는 蘇聯政府가 西班牙政府에 軍需品을供給하고 不干涉協約을 侵犯하엿다고 强辯하나 右는事實에 反한다

一、蘇聯政府는 今日까지 西班牙正統政府에對하야 食料品燃料貨物自動車를供給한데 不過하다 右는모다 不干涉協約案中의禁輸品目을 包含되지안는것이다

蘇聯政府代表의 右通牒은 四日開會의 不干涉委員會에서 討議할터인데 會議는 一波瀾을이르킬모양이다

무首相밀라노訪問

【밀라노三十日發同盟】못솔리니首相은 三十日午後파시스트의 發祥地 밀라노를訪問、沿道에 堵列하는 民衆의熱狂的歡迎을바덧다 首相은 一日午前카테드랄廣場에서 新國際平和案을 發表하기로 되엿다

獨逸反對不拘코

英蘇海軍條約近近脫稿

【倫敦三十一日發同盟】獨逸政府는 英蘇海軍條約案에 關하야 些細檢討한結果 同條約은 事實上 蘇聯海軍의 增强을 認定하게되는 倫敦海軍條約並 英獨海軍條約의 趣旨에 反한다는 理由로 英國政府의 考慮를 要請하엿던바 確聞한바에 依하면 英國政府는 獨逸政府의反對理由가업다 하야 英蘇條約案에 對하야 別로修正을 加치안케되엿다 條約案은 目下蘇聯大使館 參事官 카간氏、海軍武官 치큰데아ー氏及 英國側크레기ー外務次官補 밀러大佐와의 間에 最後的協議를 行하고잇는데 近近正文이 脫稿될터이다

濠洲政府

白、체코、南阿間에 通商條約調印

【東京電話同盟】濠洲政府는 일즉이 白耳義, 체코슬로바키아, 南阿와의間에 通商條約의 締結交涉을 進行하던바 이즈음 右諸國間에 條約의 調印을 終了하고 二十九日 聯邦議會에 上程하엿다고 三十一日附 井씨드니總領事로부터外務省에公電이잇섯다

西叛軍의巡洋艦 蘇聯汽船臨檢

지브랄타르海峽通過中의일

蘇、僭越行爲라고發表

【莫斯科三十一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蘇聯政府의 政府軍援助에對하야는 斷乎한實力으로써 應戰할方針이라는바 三十一日蘇聯汽船드니에스트르號(三五八〇噸)이 지브랄타르海峽通航中 西班牙叛軍巡洋艦셀베라號로부터 臨檢搜査를바닷다 但드니에스트르號는單히 貨物을運搬하야 마줄港에向하는途中이엿다한다 타스通信社는 右叛軍軍艦의 僭越行爲에對하야 三十一日午後 다음과가티發表하엿다

蘇聯汽船드니에스트르號는貨物을運搬하고 濠堡에서 마줄港에向하는途中 三十一日지브랄타르海峽通過에當하야 突然西班牙叛軍所屬巡洋艦셀베라號로부터 碇泊을命令바더 드니에스트르號船長은 叛軍軍艦의 强制手段에 抗拒할수가업서 僭越行爲에 服從하고 그 臨檢搜査를受하엿다

叛軍又復首都爆擊

損害莫大

【마드리드三十一日發同盟】叛軍爆擊機가 三十日마드리드都心에 向하야 加한爆擊은 意外로 損害가만허 政府는 救護員을 動員 死體及 負傷者를 收容中인대 三十一日夜半까지 判明된死者百二十五名 負傷者三百名에達하얏다 叛軍飛行機는 三十一日도마드리드上空에 飛來 市內를偵察하엿스나 爆擊은 行치안헛다

革命軍戰線飛行의 飛行機는射落

프랑코將軍聲明

【부르고스三十一日發同盟】叛軍國防委員會는 三十日프랑코將軍의 名으로 今後革命軍의 戰線上空에 飛來하는 一般航空機에 搭乘하는飛行士의 國籍如何를不問하고 射落한다고 發表하엿다

叛軍로자스港砲擊

【페르리나안(南佛國境)三十一日發同盟】叛軍所屬 軍艦一隻은 三十日 午後 카탈로니아北部 로자스港에 나타나 로자스港에對하야 砲擊을 加한結果 相當한 被害를 與한모양이다

바르셀로나市도空爆

【세빌리아三十一日發同盟】叛軍所屬飛行機數臺는 三十一日午後 카탈로니아州首都 바르셀로나上空에 飛來 爆擊을 敢行하야 多大의 效果를 收하엿다한다

政府軍이反擊 叛軍右翼을擊退

까솔린不足으로貨物運搬은驢馬馱馬로

危機一髮의西國首都

【마드리드三十一日發同盟】政府軍은 마드리드南方地區에서 急速反擊에轉하야 卅一日叛軍右翼을 아란페스市로부터 우르레로方面에 擊退하고 세세라, 아란세스、오카라等의重要戰略地點을 奪還하야 마드리드、카라안다르사、아르칸레方面에通하는鐵道도 復舊하야 안달루시아街道와의連絡도 回復하엿다 叛軍은數日來東方으로迂回하야 발렌시아街道를切斷、마드리드府를陷落하려는 作戰을取하자政府軍은 아란페스市에 精銳大部隊를 集中식이고叛軍進出阻止의 鐵棚을 築한까닭으로 攻圍軍總司令 바레라將軍은 作戰을 變更하야 에스코리아르附近에據한 左翼에對하야進發命令을 내리엇다 一日을期하야 마드리드 西北方에스코리아르市를中心으로 大激戰이 展開될것으로보인다 또政府軍의 勇將데라스大佐는 三十一日 中部戰線에서 戰鬪指揮中 飛行機의 爆擊에 戰死하엿다 까솔린 等은 政府軍이徵發한故로 마드리드市內外의 自動車 往來는 極히적고 貨物運搬은 驢馬馱馬로하야 依然동키호ー테時代의 西班牙를現出하엿다

民主黨? 共和黨?

白熱化한選擧戰

空前의新記錄인巨大한選擧費

兩黨勢力은伯仲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大統領選擧戰도 이제目前에 切迫하야 三十一日夜 루ー스벨트大統領은 뉴욕市에서 共和黨候補랜드ー氏는 센트루이市에서 各各演說을하엿는데 二日投票當日의 前夜루ー스벨트大統領은 하이드 파ー크에서 랜드ー氏는 그本部로부터 라디오를 通하야 全國選擧民에 最後의 呼訴를 할터인데 選擧戰은 이제 三日의 投票를 기다릴뿐이나 選擧事務當局은 全投票數는 四千四百萬票를 超過할것으로 豫想하고 準備에 忙殺하고잇다 民主 共和兩黨은 各各自派의 勝利를 確信하고 잇스나 公平한 第三者로 보면 今回의 選擧만치 豫想할수업는것은 업다한다 共和黨選擧委員長 하밀톤氏는 過半數를 獲得할것을 確信한다 하나 一方民主黨의 選擧委員長파레이氏도 亦是樂觀하는 態度로 勿論壓倒的으로 루ー스벨트氏의 勝利를 밋고 잇다 그러나 一般選擧界는 兩黨에對한 分離이거이 伯仲되어 未曾有의 大決戰이 잇슬것이라고 하고 잇는다 따라서 選擧費用만 하더라도 今日까지의레코ー드를 깨트리고 一月一日以降 十月二十八日까지에 共和黨六百九十八萬九千弗 民主黨三百四十萬七千弗로 發表하엿다

今日本紙四面

八面鋒

◇英國 海軍大擴張에 對抗하야 地中海를 制覇코저 伊太利 大海軍計劃.

◇伊에戰爭때에도 英艦은 석고 잇섯다고 英國이 敢히伊太利를 해대지 못한지라 其後 伊太利가 海軍을 擴張하면 一層더困難.

◇英國은 財政은 만켓지만 그만치 軍艦을 만히 建造하여야 할터니 戰爭의 勝負는 豫測不能.

◇二千三百萬圓을 追加하야 治山治水를 完成한다고.

◇何必 二千三百萬圓이라오、數千의 生命과 億億의 財産을 年年損失함을 생각하면 一億圓을 드려도 實施할일.

◇淸津에 變死事件. 監督當局의 責任如何.

日氣配

◇期米 第二回收穫豫想待로形勢觀望이나 目先强含 新甫五錢의下落

◇株式 政局待로保合이나 擴撑買氣가强하야 目先引締模樣

大新	七一、九〇
東新	一三九、三〇
鐘新	一七八、七〇
日産	八四、四〇

本社參觀

◆咸南新浦公立普通學校生徒六十二名 朱基鎔氏引率下 本社見學

◆砂上公立普生徒七十名 高明煥氏引率下 本社見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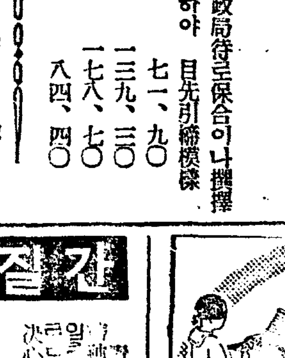
人事·集會

◆韓圭穆氏(朝鮮京南鐵道專務取締役) 三週間豫定으로 三日渡東

◆松本誠氏(朝鮮製鍊社長) 十一月一日午後十時五分發渡東

◆方本社社長◆金本社編輯局長은 平南地方巡 約九日豫定으로 一日午前八時京城驛發列車로出發

감 옷
韓青商會
京城桂洞町 電光ー三九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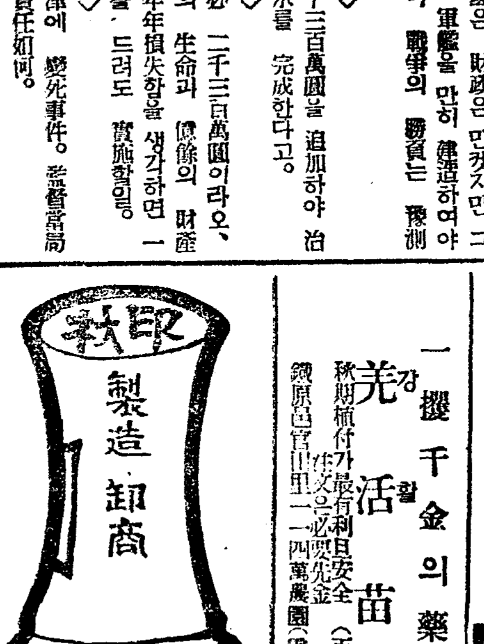

山葉オルガン
お求めには 定價30より (カタログ送呈)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電本三四八五)

절간
京城 灸院

恩給 長期低利 立替
京城樓閣町一六〇 鄭 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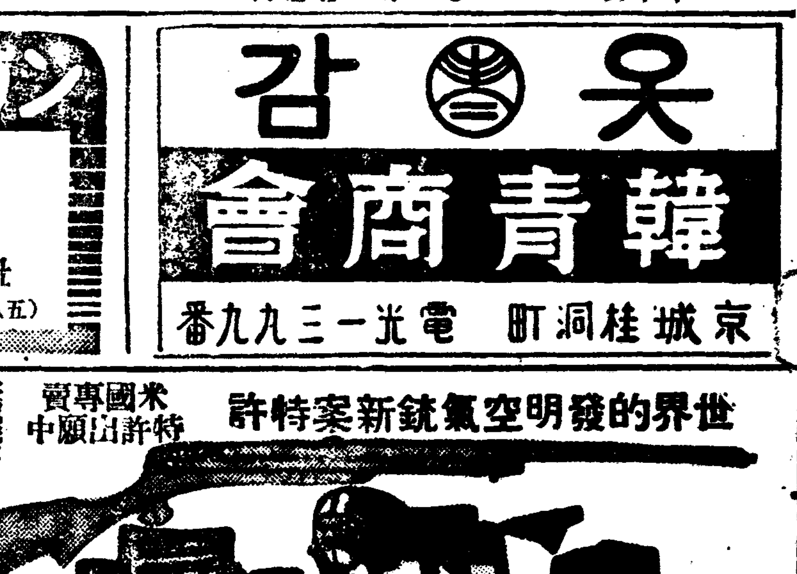
朝鮮秋菜內
京城府玉水町山五ノ一林野內現存墳墓一基의 對한緣故者又管理人은昭和十二年四月卄二日까지 京城府新堂町九七番地南山義之助方으로 屆出하시압

一攫千金의藥草
羌活苗分賣 (百本一圓)
秋期植付가最有利且安全 注文은必要先金
鐵原邑官田里一四 萬農園(電話一〇九番)
(郵便當收入四五圓)


福來社 製造卸商
京城西大門町 振替京城一三六五九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2)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八一番
專務取締役 李圭元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鍾路警察署前(舊裁判所前) 總販賣部
(電話光化門局七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七三三三)

三井ノ大同炭
大同中塊炭 京電舊市內御屆壹噸ニ付 金貳拾壹圓也
特約販賣店
西田石炭商店 古市町 電話本局三、二〇
株式會社 三國商會 南大門通 電話本局五、二四七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綿打機 空氣銃 製繩機 製叺機 稻扱機
合名會社 利善工場
振替京城一四七八六番 電話一〇九番

時計完全修理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나무가시ㄷ는이때에도이秘藥만가지면
禮泉爽談藥
定價 大包二、〇〇 中包一、二〇 小包〇、六〇
走馬痰 鶴膝風 中風 癧節風 痰腫 腰痛 神經痛

京城府內町六
大阪日新堂藥房京城支店 振替京城七二二一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二一五四
廿九日封切 每日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六時廿分
ー特別大興行!
유나이데드社提供 로널드•콜맨 G•윌스名著 文藝大作映畫
世界最大프로듀서•알렉산더•코ー다 製作
將來의世界
雄渾!壯大!! 一大驚異的作品 未來의戰爭과文明의 ... 完成!!全京城話題의中心이되는問題作品의登場
◇유나이데드社超特作映畫 조세핀•하치손主演 勿忘의노래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畫 高津慶子主演 雷鳴
◇東日大每國際뉴스
◇유나이데드社特作漫畫 極彩色 高原의秋 極彩色 밋기와名優의對抗試合

劇團 豪華船 地方巡演告別公演
十一月一日부터
悲劇 李雲芳作 男兒의世界 一幕
喜劇 南宮春作 나는귀먹어리 一幕
漫談 鄭星泰編 나의靑春、님의靑春 九景
次週豫告 十一月六日부터 朝鮮歌劇 興甫傳 五幕七場
特別豫告 十一月十一日부터 人氣劇團 靑春座 歸京公演

團成社

短距離王金君(培材) 百米十秒九・彗星的制覇

올림픽出場諸强을물리치고 全日本選手權獲得할때까지

우리스포ー츠계의 이사-패사! 세계마라손제패의 승전고에뒤따르는 또한가지깃분소식이잇스니 이는 일개 중학생의몸으로 전일본단거리계(全日本短距離界)를 정복한 김유택(金裕澤)(培材)군의 초이적활약이다 마라손과 장거리경주에잇서서는 수만흔선배가 닥거노흔토대우에서 일약세계제패의 찬연한기록을남기엇것만 김군의 백메돌우승은 어느의미로보아서는 올림픽마라손제패보다못하지안흔 성적으로서 지금까지 조선운동계에잇서서 단거리진출은 거의불가능사실가티 되여왓슴으로소조적만한 단거리계에 혜성가티 나타난 김군의제패는 단순히 금번의 전일본선수권을 획득한광영에 끄칠바이아니요 사변후 동경올림픽의 단거리제패에 희찬암시를주는바이다 작삼십일일에 열렷든 전일본륙상선수권대회는 백림올림픽에 일본대표로 출장햇든 좌좌목(佐佐木)、곡구(谷口)、시택(矢澤)、령목(鈴木)네선수와 일본내지단거리계에서 내라고할내는 금전(金田)、강전(岡田)、천수(川手)등전부일본대표가 등장한마당에서 김군은 일개중학선수로 고군분투하야 제강을제치고 십초구(十秒九)의괴록으로 렝큼끈혓다 괴록상으로본다면 김군이 조선에서지은십초칠보다 부진한듯하나군의압길은전도유망하다 김군은 평양출생으로 광성고보(光成高普)를거처현재배재고보(培材高普)사변급에 재학중이다

【百米決勝】1金裕澤(培材)一〇秒九 2川手(關西大學)一〇秒 3佐佐木(올림픽出場選手)(사진은 김유택군)

廿名五班의決死隊 朝鮮內侵入畫策

五營長、吳義成도金日成과合流 食糧强奪、人質拉去

【惠山】삼십일일혜산남도 고등과에 입전한 정보를보면 십구도구흑할자(十九道溝黑幘子)에 잇는 김일성(金日成)의 공산군대부대는 이십명의 결사대(決死隊)를 편성하야가지고 이것을 네명식 오개반으로 난호아 조선내지에 침입(侵入)시켜 조선××과 공산주의를 선전하는한편 자산가들을 습격하야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방금인선(人選)중인데 불일내로 잠입(潛入)케될것이다 ×

무송현만강(撫松縣漫江)에잇는 오영장(五營長)의 이백명과 오의성(吳義成)의 백명 합삼백명은 장백현관도가(官道街)부근에 옴겨와서 십륙십구도구에 잇는 김일성(金日成)의 대부대와 합류하야 강안(江岸)지방을 습격하려고 이미행진을 개시하고잇는데 강안각경찰서에서는 대긴장을 하고잇다 ×

이십구일오후일곱시 십륙도구소덕수리(十六道溝小德水里)를습격하야 축우(畜牛)칠두와 소맥등 식량을 전부를빼아슨후에 동지동포리병준(李炳俊)등십삼명을 랍치(拉致)하야가다

土兵이拉致한 九名을奪還

安奉線沿線에서

【安東縣】안봉(安奉)연선일대를 (荒滿)에서 화북군(華北軍)과왕 토벌군자 출동하엿든 전상부대(田上部隊)는 지난지월이십구일 봉성현제이구학구(鳳城縣第二區) 태고랑(王太姑娘)토병을 만나서 격전한결과 토병측에서는 사체 십삼명과 인질팔명을 데리고도망하엿다는데 동토벌대는 전긔 인질팔명을 데리고 지난삼십일일 오전구시경에 안동현에 도라왓다 그랍치한 인질은 지난구월 십구일 대보(大堡)에서 납치한 조선동포(住所는 全部大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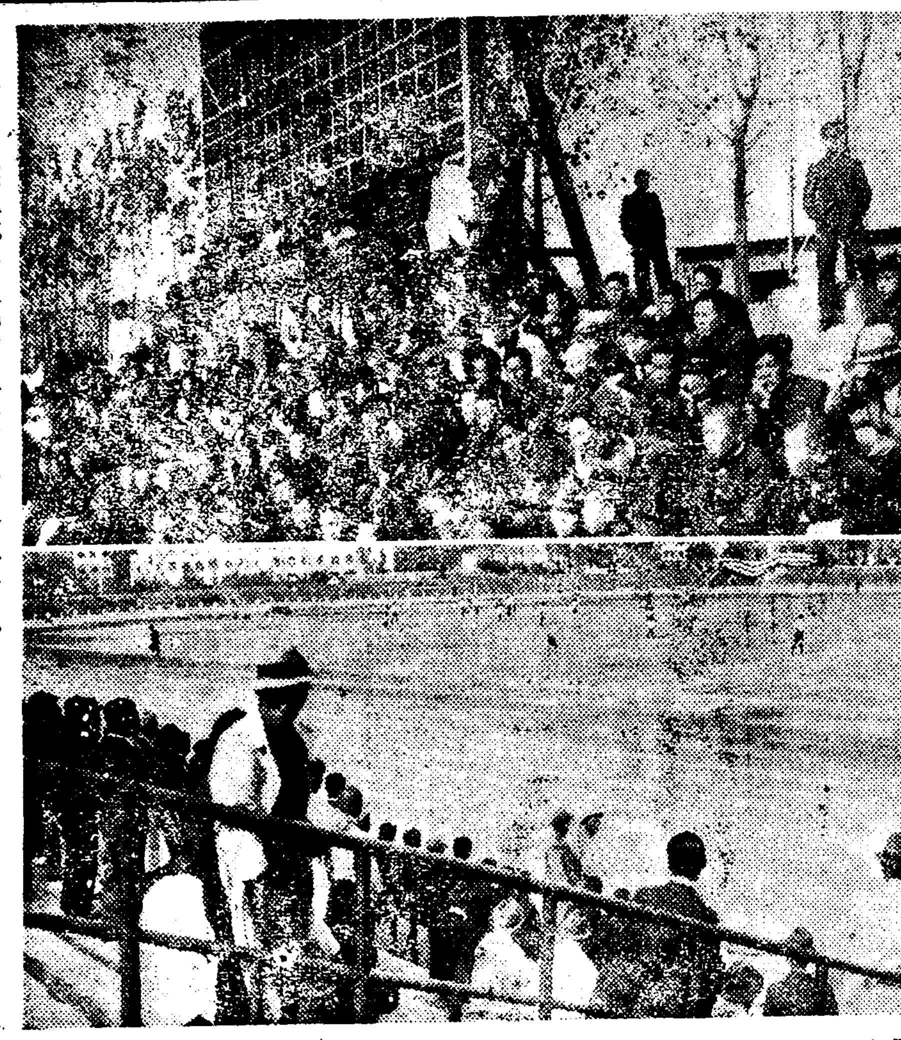
原籍 慶北安東郡南北面古白里 蕭根德(二七)
原籍 慶北伊川郡龍門面馬波里 金仲相(二二)
原籍 慶北伊川郡開浦面伊沙里 辛員出(二九)
原籍 平北新義州月下面亭山洞 李大禧(四?)
原籍 慶南昌寧郡大金面神塲里 朴炳俊(二一)

등오명과 지난팔월에 봉성현에서 현질로 잡히여 갓든만주인

住所 鳳城縣第一區黃山嶺村 焦小住의子(一〇)
住所 九連城村 王灣斌(一四)
住所 鳳城縣中區大堡村 胡貴森(一三)

등삼명인데 그들의 의복에는눈으로 참아보지못할 피가뭇고몸에는 매마진자리가 보기만하여도 몸을 오스라치게 한다는데 토병들은 그들을 인질로 자바가지고는 곳 결박하고 눈으로 보지못하게 코까지 머리에 용

수가튼것을 씌우고 갑시하면서 나제는 산중에서 돈을 기저오라고 구다하고 밤에는 조선리수로 이삼리식 이동하다 먹이는것은 강낭이떡을 조금식 먹어고 손을겨바하여 소변은 바지에 그대로보아 저저잇섯나한다 전긔동포들은 집에 돈도업서서 신대금을 주지못할 형편이여서 금번돈벌데가 달린지못햇스면 귀도떼엿고 코고떼우고손고락도 잘르며 풍찬로숙하나가 죽울것을 구사일생으로 살아온것이라한다(사진은 달아온구명)



全朝鮮綜合競技蹴球大會第二日！(上은 스탠드에 밀려든 觀衆、下는 스탠드에서 競技를遙望!)

同情이도리여罪

남의집사는동무誘拐 花柳界로進出하랴든女給

삼십일일밤 시내 종로서에는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륙십번지 녀급 한한희(韓漢姬)(一九)라는소녀를 유괴혐의로 붓잡아다가 방금취조중인데 그내용인즉 그는 시내안국정(安國町)이십륙번지 오종식(吳宗植)의집에 고용되여잇는 리임순(李任順)(一七)이라는소녀와 동성련애를 계속하여오더러인데 가을도기퍼가는 요지음 리임순이의 남의집사는 정경을새삼스러히 동정한나머지 에 함께고생을하며 살아가라는 어리생각으로 그를 데리내여다가 결국은별도리업서 자긔와가티 화류계로 나가게된것이 경찰의 눈에띄여 그와가튼 혐의를 밧게된것이라고한다

朝鮮體育會綜合競技 蹴球大會 第二日

鄕土의名譽를질머진 一般部戰開幕！

劈頭에順天、廣州、京蹴等各勝

待望의延普戰은明日로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주최의제십칠회 전조선종합경기축구선수권대회 제이일은 금일일오전열시반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열리엇다 이날은 향토의 명예를위하야 분전격투하는 일반부전이 열리어「스탠드」에는 군대군대각기향리의 응원단이 진치고잇서 전긔에 변환을 따라 이러나는 환호성은 끗칠줄을모른다 다채한 응원진속에는 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생도이백여명이 총동원하야 북쪽스탠드에진치고 응원하는양은 더욱이채를 띄웟다 이날석간마음까지의 전적은다음과가트며 명이일에는 오전열한시부터 일반부준결승전으로부터 개전되여 중학부제이회전、그리고 대망의 보전(普專)대연전(延專)의 결전이 오후네시부터 열릴터인데임장료는 장래정리로 학생또는 일반에게 오전식만을 밧기로되엿다

◇一般部戰(第一回戰)

順天不戰一勝

(第一次)一般部第一回戰…順天蹴球團對 鎭南浦蹴球團戰은 同午前九時부터 行할豫定이든바鎭南浦側은 朝鮮蹴球協會登錄問題로 棄權케되여 順天은 不戰一勝하야 第二回戰에 京江蹴球團과 對戰케되엿다

【第二回戰】

廣州1 韓敬1

(前1…1、後0…0)

(第二次)一般部第二回戰…廣州蹴球團對 韓敬壽洋靴店蹴球團戰은 同午前十時四十五分부터 禹熙昌(主)全有亮 姜東秀(線)三氏審判아래 韓敬先蹴으로 開戰된바 兩軍伯仲之勢로 前半一對一 後半에零對零으로 延長戰에 드러가 亦是得點업서 抽籤에依한바 廣州軍이得勝하야 準決勝戰에 드러갓다

【韓敬】		【廣州】
張昌煥	GK	柳光錫
朴俊燦	RF	金東煥
趙鍾九	LF	金昶鉉
金澤榮	RH	張錫俊
朴英玉	CH	鄭夏錫
李相鎬	LH	張允鉉
金昌烈	RW	崔永福
李明載	RI	姜在鎬
鄭南植	CF	朱榮澤
李石宗	LI	朴用雨
辛庸錫	LW	朴律燮

【韓敬】前	後	延	計		【廣州】前	後	延	計
1	0	0	1	得點	1	0	0	1
11	6	8	25	門蹴	3	7	3	13
0	1	2	3	隅蹴	2	2	4	8
4	5	2	11	自由	3	0	0	3

京蹴7 龍山0

(前6…0 後1…0)

【第三次】京蹴OB對龍山健兒團戰은 同日午後零時四十五分부터 金命濟(主)玄正柱、姜東秀(線)三氏審判아래 健兒團先蹴으로 開始한바 前半戰開始不過一分만에 京蹴LI鄭龍洙君이 CF李榮敏君에「패스」를바더「슛」하야 一點을 先取한後 連다라十三分까지에 京蹴CF李榮敏君의「슛」으로 三點을 加하야 四對零된後 또京蹴二十五分에「패날틔킥」를 利하야 一點을어더 五對零 二十九分에 蔡金錫君의「헤딩」으로 一點을 追加하니 六對零으로京蹴大勝한채 前半戰을마치고 後半戰에 드러가 京蹴攻擊猛烈하야 二十分에 또一點을어더 七對零으로 京蹴決勝하야 準決勝戰에 드러갓다

【龍山】		【京蹴】
安泰煥	GK	李惠燮
梁泰郁	RF	趙乙生
尹成春	LF	鄭虎隱
姜順福	RH	金日培
安三成	CH	李學奉
表完赫	LH	金其德
梁泰鉉	RW	金景俊
李昌錫	RI	崔長根
金炳旭	CF	李榮敏
金文昶	LI	鄭龍洙
趙正洙	LW	蔡金錫

【龍山】前	後	計		【京蹴】前	後	計
0	0	0	得點	6	1	7
5	12	17	門蹴	5	2	7
1	0	1	隅蹴	3	1	4
5	4	9	自由	4	3	7
0	0	0	罰	1	0	1

早慶野球第二回戰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早大	3	0	2	0	0	1	2			
慶應	4	0	0	0	4	0	0			

★★★明日의運動★★★

▲蹴球‖全朝鮮綜合競技 蹴球大會第三日 中等部第二回戰…明新對徽文(午後一時)永生對二高(午後二時半)◇一般部準決勝…廣州對順天(午前十一時)◇普專門部決勝戰…普專對延專(午後四時) 京城運動塲

(入場料는塲內整理費로五錢均一)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오호츠크海로퍼지고 高氣壓은 北支那海로부터 朝鮮으로 퍼지고잇스나 黃海道附近에는 局部的으로 低氣壓이잇다 滿洲는晴 朝鮮과日本內地는曇 半島의氣溫은 昨朝보담 十度內外내렷다

豫報 今夜는 晴後不定 明日은晴 京畿道全區도同

昨日最高 一三、七
同 最低 五、四
今朝最低 一、九
今日正午 九、一

虛僞强盜

外泊男便의廣慾策

男便놀래잔計略

本町署員들만헛手苦 强盜頻發時期의"넌센스"

연거퍼 발생되는 강도사건변인 수사에 정신이업는 경찰을 그짓말로 강도가낫다고 신고하야 또 놀래게한사건이 잇다 일일아침 일곱시십분쯤하야 부내 황금정(黃金町) 칠정목이십번지 말광일웅(末廣一雄)(假名)의 집에 새벽두시쯤 흉긔를가진강도가 들어왓다는 보고를바든 소관본정 경찰서에서는 도강도사건이 발생하엿다고 크게놀래여 이견(二見)사법주임이하 계원이 출동하야 비상진을펴고 현장을탐사하엿는데 강도가밧그로부터 들어온자최가 업슬뿐만아니라 아모것도 물건을가저가지 안하엿다는 피해자의말에 모호한점이잇슴으로 그의가족을 엄중히취조한결과 참말강도가아니라 전연허위로 신고한것이판명되엿다 전긔말광일웅은 부내모관청에근무하는터로 평소에외출이만튼터에 일하는날밤에는바게나가자고 일아침에 집으로돌아왓든데 그의안해추자(秋子)(二七)(假名)는 그의남편을놀래게하야 다시는밤에나가지못하게할목적으로 두시쯤에흉긔를가진강도가 들어왓섯다고 그의 남편에게 말하엿든바 남편은 이것이 참말인줄알고 곳그부근에잇는 한강정육(?)파출소에 계출하야 전긔한바와가튼 큰소동을일으킨것이라고한다 경찰에서는 곳그들내외를데려다가 방금 엄중히 조사중인데 강도사건의 허위고발은 경찰을놀라게할뿐더러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큼으로 엄중히처벌할터이라한다

돈훔친놈

충남론산군채운면산양리(忠南論山郡彩雲面山陽里) 최익수(崔益洙)라는 열다섯살먹은 소변은 삼십일일 오후다섯시십분쯤하야 부내남대문통 사정목우용상 리순우(李順雨)집에서 상사이야기를 하고잇는 공덕정(孔德町)삼백륙십구번지 정옥현(全玉鉉)(?)의 주머니에서돈이원구십전이 들은 지갑을훔처가지고 도망하다가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야 방금엄중한 취조를밧는중이다

生活難으로 靑年飮毒自殺

【仁川】인천부화수정(仁川府花水町)강화동(姜學東)(二?)은 나날이닥처오는 생활난에부대기다못하야 지난삼십일저녁에 다량의 수면제를먹고 고민하는것을 목야(牧野)병원에입원치료중이라는데 생명이매우 위독한형편이라 한다

慶州讀書會事件

九名에執行猶豫言渡

卅一日、大邱覆審法院言渡

【大邱】경주독서회(慶州讀書會)사건의 피고리칠성(李七星)외여덟명에대한 공판은 삼십일일대구복심법원 제삼호법정에서 개정하고 보과(保科)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가티 피고전부에게집행유예(執行猶豫)의 언도가이섯다

李七星 刑執行猶豫五年 李致路 崔秀峰 同 孫東昌 同四年 孫鳳鎬 同 孫鳳實 同 崔明杓 同 金孝出 同 金永萬 同

農村에赤色宣傳

振興會를中心으로 懲役一年"執猶"三年

【仁川】부천군남동면 고잔리(富川郡南洞面古棧里)최춘문(崔春文)(二?)은 동면농촌진흥회 야학을 근거로하야 화평정(花平町)심만택(沈萬澤)(二?)과 련락을취하야 적색사상을 선전하고잇든혐의로 인천서고등계에 체포취조하는중이라함은 임이보도한바와갓거니와 지난삼십일일오전십시부터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제일호법정에서 김세완(金世玩)판사의판결이 잇섯다는데 전긔피고는 야학생에게 적색사상을 선전하엿다는 것을시인하고또한그반면에 소작운동까지 일으키라고하얏다하야 치안유지법에의하야 징역일년 집행유예삼년에 처하엿다한다

災民에無償配附

江原道管內十三郡에 大小麥種千七百石

【高城】공전의 풍수재로 인하여 적지된 강원도에는 그리재민의 대부분이 농민들임으로대소맥의파종긔가 되엿스나 종곡이업서 파종치못하는 재해지농가에 종자를 무상으로 배부한다는데 그수량과 배부할군명은 다음과갓다한다

麟蹄三十七石二斗 淮陽二十一石六斗 通川百九石九斗 高城百五石九斗 襄陽二百石五斗 江陵二百七十八石五斗 三陟六十四石 蔚珍十三石 旌善七十七石七斗 平昌四十三石九斗 寧越三百十一石六斗 原州一百七十八石三斗 橫城百十四石 計千六百五十六石

蘇聯革命記念日

咸興署에서特別警戒

【咸興】오는십일월칠일로서아혁명긔렴일을압두고서 함흥서에서는 벌서부터 고등계총동원으로경비의만전을기하고잇다

三十年後의仁川

面目一新할道路網

【仁川】신의주(新義州)부와 인천(仁川)부와 평양부의 세도시에한하야 도시계획령이 반포되얏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과반인천부에서는 소화구년봄을 위시하야 경비삼만여원으로 신구역지의 도로계획에대하야 조사중이든바 지난삼십일 부청귀빈실로 재인천통신긔자들을모아 삼십년동안의 부계획을 발표하얏다는데 신설계획은 경인산업도로로부터 송도(松島)해안을통하야 이십팔미돌의 제이산업도로와 송현정(松峴町)매립지를기점으로하야 창영정(昌榮町)을통하야 구공동묘지를일순하는 이십사미돌의길과 동해안을일순하야 염업(鹽業)회사문전에까지통하는 이십미돌의신도로와 소년형무소를통하야 문학면(文鶴面)에일으는 도로등이신설되리라한다 그외에드 우편국으로부터 표관(瓢館)으로통하는 직선도로를만들어 계속사업으로 전차(電車)부설까지계획중이라는데 이와한가지인구는 이십만을돌파하리라한다

좀먹는花柳病

요지음 부내각경찰서위생계(衛生係)에서는 기생 작부(酌婦)기타음식점에 종사하는 녀자들의 건강을 각금진단하야 그들의 몸을 파먹고잇는 매독(梅毒) 림질(淋疾)등 성적전염병이 잇는것을 적발하야 그전파를경계하고잇스나 종로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관내 수개처에 산재한 수백명의 밀매음녀 들은 취체할줄을 몰으고 그냥 방임해둔다 그래서 그들이 밤거리의 비밀행동대들로 부터 일반에게 전파되는 병균은 기생으로부터 전파되는것보다 한층더 위험성이 만타한다 이에대하야 사회위생을 우려하는 식자들로서는 이들에대한 철저한 취체가 잇기를 바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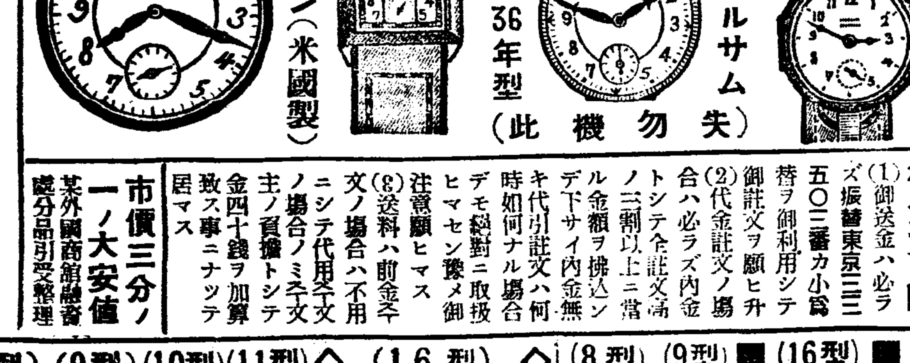
慶南道內被害家屋

八割假量은復舊

【釜山】지난번의 대풍수해로인하야 경남도내에는 류실도괴한 가옥이 이만구천칠십일호이엿든데 도당국에서 그복구를도모하고자 도지방비로부터 이십일만일천이백원과 의연금중으로부터 일만구천팔백원을 지출하야각관계자를 독려하야 복구에 노력한결과 시월삼십일일까지에복구된 가옥이 피해가옥의 약팔할에해당하는 이만삼천록백오십록호이라하며 금후도 계속활동되야 십이월말일까지에는 전부복구되리라한다

大景品附歲暮大賣出！

▲大景品內譯！
A 註文高五拾圓以上トランク(行李カバン)又ハ手提カバン一點宛無代進呈
B 註文高三十圓以上純毛セータ一枚宛
C 註文高十圓以上皮製手袋一組宛
D 註文高五圓以上목도리一枚宛
E 註文高二圓以上各時計付屬品宛



御注文の際
(1)御送金ハ必ラズ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カ小爲替ヲ御利用シテ御註文ヲ願ヒ升
(2)代金註文ノ場合ハ必ラズ內金トシテ全註文高ノ三割以上ニ當ル金額ヲ拂込ンデ下サイ內金無キ代引註文ハ何時如何ナル場合デモ絕對ニ取扱ヒマセン豫メ御注意願ヒマス
(3)送料ハ前金注文ノ場合ハ不用ニシテ代用注文ノ場合ノミ注文主ノ負擔トシテ金四十錢ヲ加算致ス事ニナッテ居マス

市價三分ノ一ノ大安値 某外國商館融資處分品引受整理

◉謹告！ 地方同業者又ハ夜學・靑年團體・農民團體・註文에 限하야는 大割引을 하옵하이니 詳細하은것은 葉書로照會하시요

■正十八金側懷中(ウオルサム・エルジン)(16型)
イ 只の 二七・〇〇 ロ 同 三八・五〇 ハ 同 三九・五〇 ニ 同 四三・五〇 ホ 同 四五・〇〇 ヘ 同 四六・〇〇 ト 同 五八・〇〇 チ 同 六〇・〇〇 リ 同 六四・〇〇 ヌ 同 十〇・〇〇 ル 同 八五・〇〇 ヲ 同 一〇〇・〇〇 (各定價[illegible])

■正十八金側懷中(瑞西製)(16型)
イ 只の 二七・五〇 ロ 同 三一・八〇 ハ 同 三五・六〇 ニ 同 四〇・〇〇

■正十八金側腕卷(瑞西製)
(8型) イ 只の 一九・八〇 ロ 同 二一・八〇 ハ 同 二五・〇〇
(9型) イ 只の 二〇・五〇 ロ 同 二三・八〇 ハ 同 二五・九〇 ニ 同 二八・四〇

◇十八金HK懷中(ウオルサム・エルジン)(16型)
イ 只の 一九・八〇 ロ 同 一三・五〇 ハ 同 二六・八〇 ニ 同 二八・〇〇 ホ 同 三〇・〇〇 ヘ 同 三六・八〇 ト 同 四二・〇〇

◇十八金HK腕卷(瑞西製)
(11型) イ 只の 六・九〇 ロ 同 八・八〇 ハ 同 一〇・八〇
(10型) イ 只の 七・五〇 ロ 同 九・五〇 ハ 同 一二・九〇
(9型) イ 只の 八・五〇 ロ 同 一一・五〇 ハ 同 一三・八〇 ニ 同 一六・〇〇
(8型) イ 只の 九・二〇 ロ 同 一四・八〇 ハ 同 一八・六〇 ニ 同 二二・九〇

◇十八金HK懷中(瑞西製)(16型)
イ 只の 八・八〇 ロ 同 一一・八〇 ハ 同 一五・〇〇 ニ 同 一八・五〇

◉クローム側懷中(ウオルサム・エルジン)(16型)
イ 只の 七・九〇 ロ 同 九・五〇 ハ 同 一一・八〇 ニ 同 一二・九〇 ホ 同 一五・七〇 ヘ 同 一八・九〇 ト 同 二一・五〇 チ 同 二三・八〇 リ 同 二四・八〇 ヌ 同 二五・九〇 ル 同 二六・九〇 ヲ 同 二九・八〇 ワ 同 三六・八〇 カ 同 五〇・〇〇

◉クローム側懷中(瑞西製)(16型)
イ 只の 二・九〇 ロ 同 三・九〇 ハ 同 四・九〇 ニ 同 五・九〇 ホ 同 六・九〇 ヘ 同 八・五〇 ト 同 九・八〇 チ 同 一一・五〇 リ 同 一四・八〇 ヌ 同 一八・五〇

◉クローム側腕卷(瑞西製)
(11型) イ 只の 三・二〇 ロ 同 四・九〇 ハ 同 六・五〇 ニ 同 八・八〇
(10型) イ 只の 四・五〇 ロ 同 六・八〇 ハ 同 七・九〇 ニ 同 九・九〇
(9型) イ 只の 五・六〇 ロ 同 六・九〇 ハ 同 七・八〇 ニ 同 九・八〇 ホ 同 一二・八〇
(8型) イ 只の 六・五〇 ロ 同 七・八〇 ハ 同 九・五〇 ニ 同 一三・八〇 ホ 同 一五・八〇 ヘ 同 一八・〇〇

◉クローム側懷中(シーマー・タバン)(16型)
イ 只の 九・五〇 ロ 同 一一・八〇 ハ 同 一三・九〇 ニ 同 一七・八〇

クラウン工業所時計部 東京市向島區東三ノ一六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手提金庫界의大革命到來！

永年研究에依한理想的發明完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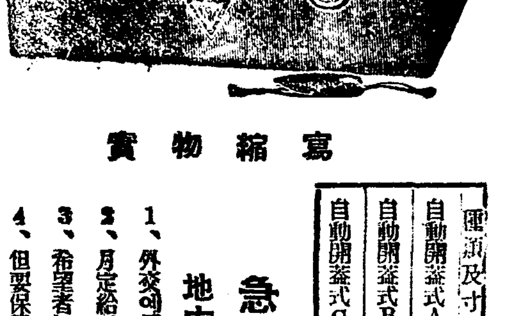
보라!!! 手提金庫의覇王!!最高級鋼鐵製의最新型本店專賣品!!

實物宣傳을爲하야一個月間特賣를斷行할特賣期間中實費提供!!

(1)材料는 모다精選한特殊鋼鐵板을使用하엿다
(2)第裝A號는오리브色沿晶塗B號는黑塗優美로되여잇다
(3)前部의 暗號文字符號는精巧하야絕對開放될염려는내지안는다
(4)前部의 開蓋는自動的으로 開키는裝置가되여잇스므로 在來의手提金庫와가티깨때문에 손을괴롭게하는일은 絕對로업고 片手로自由로開閉할수 잇기때문에 事務、使用의 能率을올린다 이點은 本店이 가장苦心한 新發明으로서 微妙精巧한 盜難豫防裝置를 兼備하야 貨財保管에 絕對로 安全하다、說明보다는 現品이 證明한다、一次보시면 모─든點에首肯하시리라 밋는다、이것은 手提金庫의 權威로서 各方面에서 異常한 好評을밧고잇다

自動開蓋付警報器裝置

使用法！……
(1)前部의 割字를 右로돌려서연다
(2)暗號文字는 各各符號文字에 맛는다
(3)열쇠구멍은 左로돌려 正確히열쇠에걸리고 右로돌리면서연다
(4)警鈴裝置는 警報器STOP을 열때만니고 ROG을열때
(5)네지金具 移動할때에 連續하야난다
(6)金銀投入口



實物縮寫

種類及寸法	縱幅	橫幅	高サ	重量	定價	特價
自動開蓋式A號	一尺二寸	八寸二分	五寸三分	一貫七百	四〇圓	一〇・〇〇
自動開蓋式B號	同	同	同	一貫六百	三五圓	八・五〇
自動開蓋式C號	同	同	同	一貫五百	三〇圓	七・五〇

急告！ 地方各郡駐在社員募集
1、外交에經驗잇는人士
2、月給五十圓부터一百五十圓까지
3、希望者는履歷書와寫眞을添付하야問議하시요
4、但保證人二人以上
5、返信料郵便切手三錢一枚要

★送金及注文者의注意
●年末大賣出期間中(十二月末日限)一人當王冠印手提金庫四個以上注文하시는이의게는精巧含製クローム側十五石入(市價十三圓品)腕卷一個式無代로進呈함!別로一圓式을加算하야注文하시는분은金庫에貴店名을새여드림니다。特價期間中에는先金또는代引을不拘코一圓二十五錢送料荷造費를注文高에加算하야注文하라。鐵道便으로驛名及住所를詳細히記入하고運賃은實費를要함。但送金은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クラウン工業所로小爲替、切手만은一割增、內金업는注文은拒絕한다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クラウン工業所

자라면 조선의 보배될 천재 소년성악가

어른을제처고「콩쿨」에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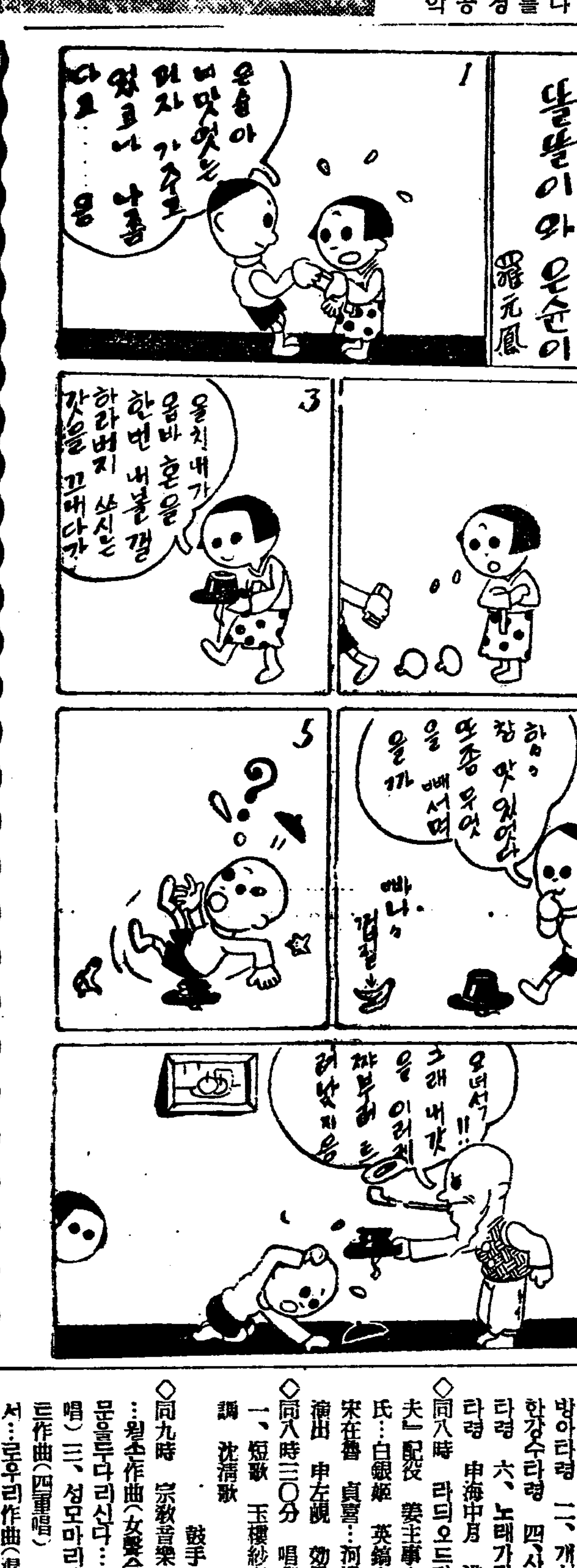
본사주최의 제이회음악콩쿨의 결선하든날 밤에 들려온 사람을 놀래 그뒤에『라디오』를 통하야 남궁요설(南宮堯卨)군의독창을 들엇슬것입니다 엄청나게 풍부한 성량과 정결한속에서우러나오는듯한 음성의 주인공남궁은 지금 열여덜살되는 소년으로서 그만한사람속에서 아등으로 뽑혓습니다 나히는어리나 어디인지 모르게 침착하면서빗나는 눈초리가 안경을 돌고별빗처름 반작거립니다 음악에천분이잇서서 그런지는 몰라도천진한가운데 웅장하며 웅창한가운데 순결과총명이 흐르고 잇섯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서신학교(神學校)교수로 게시는남궁혁(南宮赫)씨라는 오십오세된 로인이시며 어머니는 마흔아홉되신답니다 아버지께서도 음악에조예가 깁다하며 누님되시는 남궁요안나(南宮堯安那)씨는 리화전문음악과에 단니신답니다 모다구남매나되는 형제가운데서 모다가음악에 취미와천분을가지고 잇스며 큰누이되시는 분은 남양군도의『짜바』에서 상업하시는이에게 시집갓답니다 그리고 형님되시는 남궁랑(南宮琅)씨는몃해전 조선일보의 현상민요(民謠)모집에 당선하야 민요작가로서 일홈이놉답니다 본래부터음악적인 가정에 태여나서 음악속에서 자라난 요설군은 어려서 슈-베르트의『보제수』라는 레코-드를 듯고 거기에 그만 감동되여서 음악에뜻을 두게되엿답니다 공부는평양고보에 단니면서 열여섯살되든해 여름부터 평양잇는독롯스부인에게 음악을 배우기시작하얏답니다 원래 천분이잇는 요설군은 일취월장하야 공부를 시작한지 삼년만에 금번에 이등상을탓습니다 누님되시는 요안나씨의 반주는 듯는사람의 가슴을 짓눌너 주어습니다 사랑하는 내동생의성공을 위하야 수천의청중을 아레두고 흥분으로 떨리는 손구락은 조용히조용히 피아노의『키-』를 누를때 눈님의눈에서는눈물이 그렁그렁 어리엿습니다 이상발표에 이등입상의통고를 바든 그날은 량씨와 안나씨가 동생을 다리고 신문사를 차저왓습니다 때변복에는 동경음악학교에 가라고 지금시험공부를 하는중이랍니다 엇던음악가가 제일마음에든다며 숭배하느냐고 물어보앗더니 요설군「베토벤이 조화요」하고 대답한뒤 다 엿해서는 누님이「이애가입상될줄은 꿈에도 생각지안엇습니다 그저실력잇는대로 싸워보리라는 생각으로 나왓습니다」하며 기뻐과 흥분에 그만얼골이 붉어젓습니다

—사진은 요설군과 군의누님 요안나양—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걱정하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또 무엇을 잘못한다고 꾸중하시지안느냐? 너의들 생각에는 그런 걱정이나 꾸중을 안 듯는다면 좀조켓느냐? 그러나 너의들은 아즉도 일을 분간할줄 모르는 철부지의 아이들이다。부모나 선생님이나 너의들을 잘가르처 조혼 사람을 맨들고자 그러게 하는것이지 결코 미워서 그러는것이 아니다。

거름발 타는 아이들을 제멋대로 것도록 내버려 두어보아라。마루에서 떨어도지고 우물에 빠지기도 할것이다。또 돌안의 아이들을 제멋대로 먹겨내버려 두어보아라。독한 양재물도 사탕으로알고 먹고 썩고쉬고 상한 음식도 아모 분간업사 잔뜩 먹을것이다。그러케 못하도록 하자니 어른이 보호를 하게되지 안느냐? 너의들도 그러한 보호를 바더서 오늘까지 큰것이 아니냐?

아즉도 너의들은 어른의 보호를 바더야 한다。어른의 걱정이나 꾸중이 너의들을 키우는데잇서 조혼 거름이라는것을 알어두어라。



作文 初雪

濟州公立普通學校 李興元

「곳일라드니 또 나리는나」

「집에도 못가 큰일낫다」

이런對話가 敎室한구석에서 밧귀엿다。그들은 멀어서라든비가 다시繼續되는것이 걱정이엿든모양이다。그러나 다행이 비ㅅ줄기가 變해 두세식 눈에들만해가라할적에 門을열고보니 花壇우에 휘가루를헛튼듯이 싸락눈이깔리엿다。

그러나 눈맛는것은 비맛는것보다는 나으니까 하고 門밧을나섯다。어름보다도 차게부는바람이 몸에부듸처 피가날듯이 알이다。한다름버집해서 겨우 집에다달어 찬몸을녹히엿다。

어느듯 녹아가며퍼붓는눈이 네다섯치나 땅우에 고요히 싸엿다。

『첫눈이 이럿게일즉 저럿게 만이와서야 것우지못한 곡식은 다버리지안나。』

『來日 날이나뿌면 들에잇는 무 배추들은 다 얼어버리지안나。』 이런걱정으로 첫눈을 기꺼히 역이기는 둘재로 來日의日氣만 조케되도록 하늘에 顧할뿐이엿다。

—끗—

十月十七日

입으로물을뿜어 무지개서는법

날세조혼날을 가려서 오전열시나 오후두시쯤되거든 태양을 등지고서서 입에 물을 먹음어 가지고 뿜어보시오 그러면 그 안개가튼 물방울속에서 칠색무지개가 아주 찬란하게 섭니다 그러나 물을 빨지안커나 태양이 구름속으로 드러가게되면그만 무지개가 살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태양이 노풀때는 무지개가 미트로서고 태양이 나즐때는 무지개가 우호로서게됩니다 입으로 뿜기가 힘이들면빈대약 뿜는 긔게가튼것으로 뿜는것도 조켓습니다 그러면 바로눈에아페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는것을 볼수가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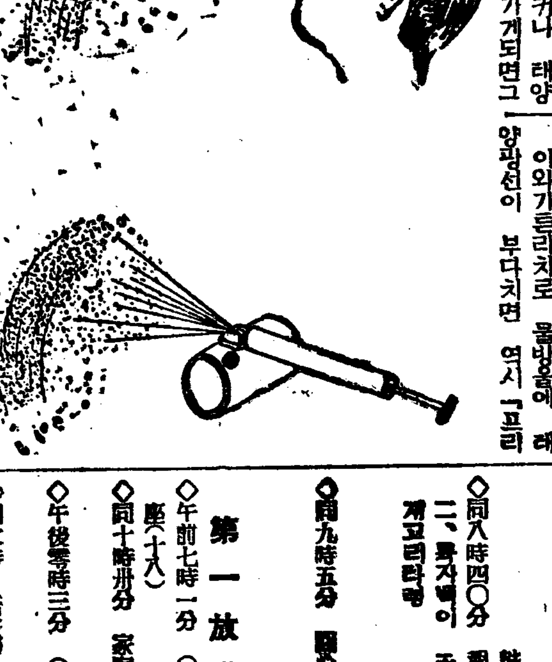
그러면 물을뿜어서 어떠케무지개가 서느냐하는것을 이야기하기전에 먼저이러한 실험을해보기로합시다。그런데 안개라는것은 모다 적은 물방울로되것이고 또한 물방울이란것은 모다 태양광선이 통할수잇다는것을 생각할 필요가잇습니다。그다음에는 시험관에다가 맑은물을 하나가득 너허가지고서 한쪽을 손가락으로 막고서 태양을 등지게서서 약가빗닥하거든고 태양을 손가락에 대이고서 그시험관속에서 붉고 푸르고 누르고한 여러가지 빗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이것이 무지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것입니다。

그러면 이러케 시험관속에서 찬란한 빗갈이 반짝거리는 것은 무슨까닭이냐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웟는지 모르겟스나「프리즘」이라는데서 여러빗갈이 흐터지는 때문입니다。이것을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나「프리즘」이라는것은 세모나는 유리알맹인데 여기에 태양광선이 다으면 아무빗갈도 업든것이 일곱가지 빗갈로 보입니다。

그것은 태양광선이 본래 일곱가지 빗갈로 되여잇는때문인데 그태양광선이「프리즘」이라는데 부다치면 그유리를 투명하는동안에 광선이 꺽기게됩니다。이광선의 꺽기는것이 강하고 약한차이가 잇는때문에 여러기지 빗갈이 따로따로 보히는것입니다。

이와가튼이치로 물방울에 태양광선이 부다치면 역시「프리즘」에 부다치는것과가티 광선이 꺽기는동안에 한데 뭉처든 빗갈이 따로떠러지게됩니다。그래서 무지개가 서게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란을해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어ㅅ피기를 것을 실험해보십시오。


(사진은 물을뿜어서 무지개서게하는것)

집에둔개가보구시퍼 무선전화로「에쓰 에쓰」

—수만리박게서원을푼얘기—

고향에두고온 귀여운개생이작고한나서 구경마일이나되는 먼곳에떠러저서 무선전화로 이야기를한 얘기가 잇습니다

이얘기는『로빈·로-저스』란 애인데 올해에 겨우세살입니다 엇더케 작난이심한지 못을가지고놀다가 그만 꿀꺽 목구멍으로 삼켜버렷지요 그래서 원집안이 발끈뒤집혀 병원에를데리고갓다、야단들이낫스나 수술해서 끄내만한 병원이업서 멀리 호주(濠洲)「멜보른」이란곳과 미국「필라델피아」읍까지가서 어느큰병원에 입원을햇습니다 그못을 끄려내기에수술하기가 퍽어려웟스나 유명한의사를맛나 훌륭히 수술을맛고그못을 빼내게되엿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로-저」는집에두고온 개가 엇지보고십든지 수술바들때도「에쓰、에쓰」하며 개이름을 불럿습니다、그래서 그의아버지가 가엽게생각해서 그런데서 곳무선전화로 개를 불러내게되엿습니다。「로-저스」가 전화통에 입을대고「에쓰」를 부르니까 저쪽에서는「에쓰」가 애기의목소리를알아듯고 반갑다는듯이꼬리를치면서 그소리로 멍멍 짓첫습니다。

그러케한뒤 그의아버지는「로-저스」를 위로하기위하야「에쓰」를 병원까지 불러왓답니다。

(사진은 병원에서 배에업혀가지고노는「로-저스」와그의개「에쓰」)

라디오

一日(日曜)

◇午後六時 어린이科學「建築이야긴」 朴吉龍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正勤正斷과安樂行」 佛敎時報社 金泰洽

◇同七時三〇分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개성난봉가 三、한강수타령 四、사발가 五、흥타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申海中月 洪笑月

◇同八時 라듸오드라마『女必從夫』配役 婆主事…申左俔 紺氏…白銀姬 英鎬…(그의아들)宋在善 貞喜…河邊玉 同人會演出 申左俔 效果 宋纂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玉樓紗窓 二、唱劇調 沈淸歌 劉弄珠 鼓手 丁元燮

◇同九時 宗敎音樂 一、찬양하세…윌손作曲(女聲合唱) 二、금문을두다리신다…黑人謠(四重唱) 三、성모마리아…아ー카델트作曲(四重唱) 四、주를떠나서…로우리作曲(混聲合唱) 五、전능왕오서서…로렌쓰作曲(女聲合唱) 六、주님의크신은혜…리리나스作曲(混聲合唱) 監理敎會神學校讚揚隊 指導 高鳳京

◇同十時 鮮滿交換放送(新京二重放送開始記念放送) —京城으로부터—

二、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가)管樂 長波停息之曲(管樂、大笒、短簫、唐笛、杖鼓、座鼓)

(나)合樂 長春不老之曲(編鐘、編磬、奚琴、牙箏、大笒、短簫、唐笛、杖鼓、座鼓) 李王職雅樂部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朝鮮放送協會理事長保坂 久松

二日(月曜)

◇午後〇時五分 趣味이야기「二情報部」 徐相弼

◇同一時一五分 家庭講演「家業로생기는病」 金光鉉

◇同六時 童話「그리운자장가」 康承翰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自法과米價動向" 鄭秀日

◇同七時三〇分 家庭講座 朝鮮의婦人問題 總督府事務官 張膺震

◇同八時 流行歌 一、한숨 全壽麟作曲 二、靑空九萬里 羅素雲作曲 三、갈대꼿 全壽麟作曲 四、沙漠의旅人 羅素雲作曲 五、나그네사랑 全壽麟作曲 六、異域의길손 羅素雲作曲 李圭男 DK管絃團

◇同八時二五分 大笒獨奏 一、散調 二、鳳凰吹 朴鍾基 鼓手 韓成俊

◇同八時四〇分 報念 一、報念 二、黑자배이 三、興打鈴 四、개고리타령

◇同九時五分 國樂曲 金素玉 金素姬 金壽男 辛泰山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東)基礎英語講座(十八) 隈谷 榮

◇同十時卅分 家庭講座 鎌田 靜子

◇午後零時三分 (東)漫談 牧野 周一

◇同二時 (東)婦人時間

◇同六時 唱歌史劇 龍山小學校五年生

◇同七時卅分 講演

◇同七時四十分 (東)講演 峯田 成友

◇同八時 (東)東오도리—新橋꼿

◇同八時四十分 (東)笑 色

◇同八時五十五分 (東)라듸오드라마(放送文選懸賞當選作)

三日(火曜)明治節

◇午後一時 獻詠歌披講式實況(飛鳥)—朝鮮神宮拜殿으로부터中繼—

◇同六時 唱歌 一、君が代 二、明治節 三、國民歌 四、旅愁 五、故鄕의空 六、日本의旗 水下洞公立普通學校兒童 伴奏 安仁子

◇同六時二五分 講演「明治節을當하야」 李俊興

◇同七時三〇分(東)合唱과管絃樂「祝典序曲」(올림픽入賞의 江文也作品)外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同八時一〇分 歌曲 一、界面 二、弄 三、羽樂 四、編數葉 五、還界樂 文明仙 楊花容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四〇分 野談 "不求自得" 廉秋岡

◇同九一〇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중모리 二、唱劇調 (가)短歌…竹杖芒鞋 (나)唱劇調…興夫傳中 바다는데 李素香 鼓手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少年少女獨唱大會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合唱과管絃樂

◇同八時一〇分 (東)長唄

◇同八時三五分 (東)舞台劇

曆

十一月二日(月)

陰丙子九月大(十九日)

戊子·火·畢·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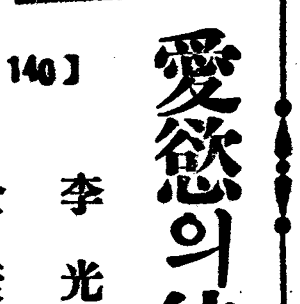
●祭祀에宜함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舊二十四日)

愛慾의彼岸 【140】

李光洙 作 金康錫 畵



이러케 생각할 때에 강이 지금까지에다 노리고 애쓰던것 잘하라고 애쓰던것이 다허되고 잘못됨을 깨달앗다。저와가티 질하노라고 애쓰지아니하는 사람들이도로혀 저보다는 진리에 가까운 길을것는것 가티보엿다。

강의 압헤는 괴롭던 일생이 떠나왓다。그러나 그것은 꿈이엇다。성내는 안해와애원하는듯한、모든것을 다 바치는듯한 혜련의 모양이 떠나왓다。강은 이 두 사람을 평등으로 볼수가잇섯다。자긔를음해하야 학교에서 몰아내던 교사들이 떠나올 때에도 미소와 묵레로 대할수가 잇섯다。강의 마음 눈에 보이는 세계의넓은 벌판에 우물거리는 중생을 모도 평등의 마음으로 대할수가 잇섯다。길일흔 양의 떼로 인류를 보시던 예수의 심정이 결코 억지로 지은 심정이아님을 알수가 잇섯다。

「吾觀一切。普皆平等。無有彼此。愛憎之心」

이라고 하신 석가의 심경도 알수가 잇는것 가탓다。죽엄을압헤 노흘 때에 모든 사람은 미울것도 고울것도 업시 모도 평등이엇다。다만 자비하는 생각까지는 나지아니하엿다。저들을 다 구원하리라는 큰 원까지는 나지못하엿다。

「나는 역시 적은 인물이다」

하고 강은 최후의 한탄을 발하엿다。

「겨오 혜련을 그릇치지아니하리라는 소원만이 내게 주어진 가장 노픈 경계다。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자、하는것이 변변치못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표할수잇는 최후의 경의요 감사다」

강은 이러케 생각하엿다。그리고 슬픔도 무서움도 아까움도 원망함도 업고 마음으로 가만히 눈을 감앗다。그리고는그의 전재적인 의지력을 최후로 최고도로 발해서 제 숨을 끈허버렷다。

숨이 막혀서 답답하고 괴로웟스나、강은 그것을 참앗다。아모 때에죽어도——그것은 가만히 잇서도 조만간 한번은올 것임을 강은 아롬으로——아픔과 괴로움의 끝은 통과하는 것이라고 강은생각하엿다。강은 최후의 승리만은 일치아니하리라고 크게 크게 결심하엿다。

육체가 죽지안흐랴고 반항하엿다。호흡긔와 순환긔가 아는 힘을 다해서 조천하엿다。그러나

「어서 술어저라、나는 마침내 너를 이기고야 말것이다。육체야 너는 내게 정복되엿다 결코결코 다시는 네 노예가되지아니할것이다」

하고 강은 터저나오라는 숨을 이를악물고 틀여삽혓다。

강의 심장은 미친내 강의마음에게 졋다。강은 아뜩하는듯 다시는 정신을 차리지못하엿다。

이러케 강은 그의 일생을맛초앗다。

강의 시체는 장안사에서 멀지아니한곳에 가매장을 하엿다。그것은검사의 지휘를 기다리기 때문이엇다。

그러나 그의 유서가 그의필적인것을 증거하기에 며칠을허한 뒤에 그의시체는 유언에따라 회장에 부치자는 의논도잇섯스나 그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엿다。이이상 강의 시체에대하야서 질게 말할 필요는 업슬것이다。

혜련의 강의 시체가 흰 관에 들어서 땅에 무처는것까지는 보앗스나 집장로의 재촉으로 장안사에서 이틀을 묵고는 서울로 올라가지아니할수업섯다。

차가 서울에 다은것은 가을人비가 뿌리는 저녁때엿다。정거장에는 한달전 떠날 때모양으로 은주가 나와서 기다리고 잇섯다。

혜련은 은주를 볼 때에 퍽으나 가엽섯다。문임은 혜련의 압하라 그러한지 은주에게 반갑게 고개를 숙엿다。은주는이 의심스러운 애인에게 대하야 어떠케할바를 몰랏다。

문임은、그러나、은주의 초췌한 모양을볼때에 마음에 아픔과 부끄러움을 느꼇다。장안사 려관에서 혜련에게 자백을한뒤로 부러는 문임은 제 마음을 속이기가 심히 어려웟다。것흐로는 아모러치도 아니한 양을 꾸미지마는 속으로는 시시각각으로 비늘로 찔림을 느꼇다。

그러다가 은주를 대하는 때의 문임의 심경은 참으로 견듸기 어려운 일이엇다。만일문임이가 자ㅅ속에서 부터 정성에서는 은주를 만나리라는 마음의 준비를하고 오지아니하엿던들그는 은주를 대할때에 긔절을햇슬는지도 모를것이다。다만 집장로만이 것버서 성공방끝하며、은주떠려、

「그 동안 아모일 업섯니?」

하고 단장을 두드고잇슬뿐이엇다。

기침

에잘듯고 먹기좋은약

백일해

기침병중에도 가장 고통이 심한 백일해 홍역의특효약으로구미각국에서도유명한「지미草劑」의대표적제약이니 정확한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써 약을실혀하는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떠욱유명하며 더구나 국약성분과 마취성분이 조곰도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임니다

그럼으로 전문가의림상치료에도 늘 칭찬을밧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갓치 오래쓰는병도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꼬롱이 심한발작을다스리며 구토와쇠약과 무서운병발증을방지하고 잠을잘자게만들어줍니다

밧튼기침·천식

조선은 기후와 토질의관게로 특히 밧튼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이 만흐니「지밋신」은 조선사람의체질에 꼭맛는만큼 무슨약보다도 부작용의염려가업서 잘듯고 잠을잘주무시게만들어주며 속히 근치식혀준다고 청찬과감사로 환영을밧고잇습니다

어느가정에도 한병식 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 잠재일적에 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위험한 기침병을 예방하여주며 잠을 잘자게하고 자는동안에 병중케의 악화를 방지하여서 무슨약보다도 속히 근치식혀줍니다

チミツシン

지 밋 신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TY-K-43

入學難을 緩和코자 第二次公普校擴充

十年後六割의 收容을目標로 慶南道의 新計畫樹立

【釜山】 경상남도내에는 초등교육긔관의 대부족으로 매년학령아동의 약이할밧게 수용하지못하야서 남어지대부분의 아동들은배울곳이업서 가두에 방황하고잇는참상이라 도당국자도 초등교육 긔관확충의 필요를절실이늣긴바되여 제이차 공보교확충계획을 수립하는중이라 함은이미보도 한바인데 요지음그계획이완료되고 다만총독부당국의제이차 공보교확충의 경남도할당만 기다리고잇다는데 그계획의내용은 현재이백오십팔교 일천오백륙십구학급에 칠만삼천사백팔십사명의아동이 수용하고잇는것을 소화십이년도 부터점차증과하야서 현재일면일교제를 일면이교제로 완성시켜도내학령아동의 륙할을현재 취학아동의 삼배를 수용하도록 한다고한다

奉天에서도 한글記念式

【奉天】 한글발표제사백구십회를 맞난 봉천한글연구회에서는 지난이십팔일 오후칠시에 당지공상반점(工商飯店)에서 회원십여명이 회합하야 리정근(李定根)씨사회로 긔념식(記念式)을 개최하엿는데 한글을 지여주신선생님들을 위하야 축배를들고뒤니여 한글에대한 이야기와 특히한글을 일반에게 보급시키는데대한 대책을 토론하고 동아홉시경에 폐회하엿다한다

移民希望者續出

嚴冬을아페두고 居昌郡內에 만五百餘戶

【居昌】 경남거창지방은 지난번 거듭수해로 인하야 문자그대로 대참화를 보게되엿다함은 루보한바이어니와 군내 일만여재민은 그후 당국과 일반사회단체의구조를 바더 근근히 생명을보존하야 오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수마에 빼앗기고 남은촌토(寸土)의 수확이엿든바 이마자 충재로 추수긔인 오늘에와서 한줌의 신곡(新穀)을 어들수업서서 빈주먹을떠려쥐고 추상이자진이때에 남부여대하야류랑의길을 떠나는 류리민이 매일죽증하며 군당국에 이민희망자가 날로답지하는바 그들의면별호수는 다음과갓다고한다

面別	移民戶數	同家族
神院	三六六戶	八五二人
加北	一七二	七四八
加祚	四	一九
馬利	三	七
高梯	一	五
熊陽	五	一五
主尙	三	一四
月川	一一	四七
計	五六五戶	一七〇七人

濟州警察署活動 男女十六名檢擧

年年히問題되는海岸線紛爭 —事件의進展을注目—

【濟州】 지난이십삼일새벽에 제주도경찰서에서 성산면 고성리(城山面古城里)에 출동하야 돌연 남녀십오륙명을 검거하여왓다는데 절대 비밀에 부침으로 그내용은 자세히 알수업스나 일반리민들의 여론을 드건데 십여일전에 고성리(古城里)해녀와 오조리(吾照里) 해녀가 해안어구 문제로 인하야 분쟁이 일어나 경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싸움을하야 채취한 해산물을 바다에 던저 버리는등 류혈의 난타로 일시는 형세가 험악하야 싸움을 제지할수 업섯는데 금번 검거원인은 이해녀싸움의 발단에 인한 것이라고한다 이제 문제의 해안어구는 고성리이구(古城里二區) 방두포(防頭浦) 압바다 약오만평이나 되는곳인데 이곳은 해산물이 풍부하기때문에 오조리(吾照里)에서는 해안선이 협소한관계로 해마다 금 삼십원을 각부형식으로 고성리민(古城里民)에게 지출하야 해초(海草)생복 소라 등을 공동채취해왓섯는데 금년봄부터 고성리민들이 공동채취를 반대하고 채취한 해산물을 빼앗는등 루차분쟁이 지속해오다가 지난 금월초순에 량리 리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여 분쟁이 확대된것이라한다

梨專巡廻音樂 十一日車輦館서

【車輦館】 음악의전당(殿堂)이라할 이화녀자전문학교(梨花女子專門學校)에서는 금번추긔를 리용하여 음악보급을 목적으로 조선내중요도시를 거쳐 만주 합이빈까지 순회음악연주회를 하게되엿다는데 래십일월십일일에는 본보차련관지국후원으로 당지공보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엿는데 이모임은 차련관유사이래 처음열리는 연주회니만치벌서부터 일반사회의 인기는 비등하며 당야의대성황을 상상한다

光成高普學生展 自一日三日까지

【平壤】 광성고등보통학교(光成高普)에서 일일부터 삼일까지의 삼일간 그학교강당에서 학생미술전람회(學生美展)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출품되는것은 도화(圖畫)와습자(習字)로 수백점에 달하여예상이외의 수확을어들것이어서긔대는크다 이번미전은 도화습자 담임윤종식(尹宗植)군의 지도하에 개최되엿다고한다

敎員界의先輩 朴氏記念碑閣 卅日除幕式擧行

【殷栗】 은률교육계의 선배박찬혁(朴贊爀)씨 긔념비각의 건립을 선생의 제자들이 발긔하여 장연면봉암리(長淵面鳳岩里)에다가 세우고 시월삼십일일에서 대히 제막식을 거행하엿다 선생은 당년륙십구세로 유시로부터 남달리 간절한 제조를가져 구학문을 능통하고 만은제자들을 가르치여 그제자들가운데도 문장이라고 할만한사람이 만이낫다고하며 선생의 명성은 향리에만이아니라 전선적으로 그일홈이 놉다하며 멀리일본내지에서까지 선생의 필적을 구하여 가는 사람이잇다고 한다

平壤放送局 自十五日本放送

【平壤】 평양방송국은 얼마전에 국사와 내부긔계장치전부가 종료되여 십오일부터 본방송(本放送)이 시작될터이다 낫오후두시부터는 공회당(公會堂)에서 축하식의 실황방송이잇고 밤여섯시부터는 일부방송이 잇슬터인데 축하식때에는 남(南)총독의 고사 상내(上內)지사외 수명의 축사가잇슬터이라한다

실황방송에는 제이부축하방송이 잇슬터인데 평양방송국의금후의 방송은 경성방송국의중계와 평양향토예술을 중심으로 방송하기로되여 긔대는큰바잇다 그리구 최근가방송에서 민요(民謠)에 대하야 일본내지각방송국에서 격찬하는 편지와 이종류의 『레코ー드』를주문하여 오는등 밧서부터 대인긔라한다

乘合自動車顚覆 一名卽死 六名은重輕傷

陰城郡에서생긴慘事

【淸州】 충북제사백이십오호정용옥이가 운전하는 승합자동차가 지난삼십일오후다섯시에 음성군읍내(陰城郡邑內)를 떠나 괴산읍(槐山邑)으로 향하는도중 음성군원남면하당리(遠南面下唐里)에 평평한 신작로에서 벗뿌라나무와 충돌전복되여 승객열명중다섯사람은 경상을 당하엿고 괴산군괴산면대덕리(槐山面大德里)에사는 정옥득(鄭玉得)(二七)은청주도립병원에 입원치료중 삼십일일에 드듸여 사망하엿다하며 동군동면 제남리(齊南里)에 거주하는 김학우(金學雨)(二七)는 중상을입어 청주도립의원에 입원중 중태이나 생명에는 별관계가 업다는바 운전수도 경상을입엇다고한다

任尙攝輕罰陳情? 西城里借地人連署로

【平壤】 칠전의차지료를 일약십배인 칠십전으로 올리어 노코사십칠호차지인들과 작년부터 말성을일으켜 자긔의요구에 응치안는다고 금기야집을 강제로 허러버리고 또는고가의 차지료에 응치안는다고 생명으로밋고잇는 차지인의주택을 강제차압하는등 불규를계속하고잇든 서성리(西城里)이십팔번지 지주오경수(吳景洙)에게 삼백원가격의주택을 몽땅빼앗긴 차지인임상섭(任尙攝)(三)이 가으로처서 중상을입힌후 살인미수 범인으로 몰하 평양서에 체포되여 취조를밧는중이라함은 긔보한바잇섯거니와 임상섭과화경을가티하고잇는 차지인사십칠호에서는 련명날인하여 임상섭은 결국 사십칠호차지인전부의 옹호자이므로 중벌에처하지안토록 해달라는 진정서(陳情書)를 경찰당국에제출코저 목하분주한터이라한다

堤防築造計畫 昌寧의漁,梨兩面

【釜山】 락동강(洛東江)상류건안에잇는 경남창녕군어유면과리방면(昌寧郡漁遊面、梨房面)은 지난번의 대홍수로 전답약일백십구만구천여평이 수확전무에 도라가서 관계지주 일천여명이 대한 손해를 당하얏고 도소작인、오천여명이 말할수업는 참경에 빠저잇는데 지난구월하순 류달영(柳達永)하준석(河駿錫)면장 문동숙(文東淑)로재홍(盧在鴻)등 제씨의 적극적활동으로 대책강구에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여러가지로 연구중이든바 요지음 관계지주의 부담으로 총공비약삼십만원을 가지고 비교적유력한 연안세곳에 제방을 축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삼십일일에 전긔사씨외오명이경남도당국을방문한후 전긔 계획을 설명하고 도당국에서 공사실시에관한 실지측량급 구체적계획을 수립하야 적극적으로 활동하야 달라고진정하엿다한다 그런데 동공사는 명년일월부터 사월까지에 완성하도록 할터이라하며 긔한에 울고잇는 일만여명의 리재민을 공사장에 사용하야 약사백륙십만평의 전답을 완전하게하는 동시 리재민을 구제하는 일석량조의 효과를 보게한다는데 일반은 동계획에만흔긔대를 가지고잇다고한다

七十二個所井戶中 六十五個所가涸渴

◇……原因은地下墜道의貫通 水飢饉에우는下碣市民

【咸興】 장진강수전회사 저수지로부터 하기천보장(下岐川保庄)까지 이르는 동안의 수도(隧道)가 하갈(下碣)시내의 지하를 관통하게되야 하갈(下碣)시내는 갑작이 우물에 물이 말느기시작하야 현재에는 칠십이개소의 우물중륙십오개소가 물이업서서 쓰지못하게되는 형편이다 더욱이 결빙기(結氷期)를 압두고는 더욱 호갈(呼渴)이 심하야 수난에 전시내주민들의 공황을 일으키여 일대중대문제화하고잇스며 저수지의 수위(水位)가상승(上升)함에따라 우물의 용출량(湧出量)이 증가할것에 일루의희망을붓치고잇든바 그것조차 수량부족으로 무망(無望)상태에 이르러 주민들은 극도의 당황(唐慌)을 마지안는다 그리하야 주민들은 회사당국과 그선후책에대하야 협의한결과 회사에서는 물이마른우물에 대하야 배상(賠償)을 하여주기로결정한후 새로운곳의 우물을 파서 물긔근을해소하기로 되얏는대 이럿케하야도 엄동(嚴冬)중에는 크게부족되리라고 일반주민의근심이크다

本社江西支局主催 經濟大講演會 超滿員大盛況裡에閉幕

【江西】 기보 본보강서지국에서는 본사주필 서춘선생을 초청하야 경제강연회를 당지감리교례배당에서 개최하엿는데 연제는 화폐가치와 물가(貨幣價値와物價)라는것으로 선생은 열화가튼 웅변으로 약두시간 동안을연설하야 팔백여명의 청중을 도취케하고 오후열시에 무사폐회하엿는대 금번강연회는 강서유래처음이니만치 읍내에서 오륙십리나 원거리되는 촌부락에서까지 도보로와서 청강함에대하야 주최자측에서도더욱감사하엿다한다

忠南의 名勝巨府巡禮 (二)

古都扶餘邑차저드니 泗沘水上落花岩等等

滿目悽然한古跡못내서러워라

大田特派員 申哲 記

일행은 멍에를벗겨 일로백제(百濟)의 고도(古都)부여(扶餘)로 향하얏다 부여읍에 도착하기전 약십리를 남겨두고 바른편으로 보이는것이 왕릉(王陵)입구라고 써세운 표목이엿다 왕릉을 참배하고저한 마음이 업지안핫스나 오늘의 예정지를전부시찰하고 일로 오백여리림장에잇는 온양(溫陽)에 도착할예정이엿기때문에 유감스러운 마음을 억제하면서 그대로 지나처 부여읍에 도착하니 때는오전 열시를 가르키고잇다 이곳은 고명을 소부리(所夫里)라고도 하얏스며 사자(泗沘)라고도 하얏스나 지금으로부터 일천삼백구십삼년전 백제(百濟)의십륙대 성왕(聖王)십륙년에 웅진(熊津)(現公州)으로부터 도읍을 옴기고 지명을 남부여(南扶餘)라고 개칭하고 정치를하야 왓든데동 삼십일대의자왕(義慈王)이십년 칠월에 당라련합군(唐羅聯合軍)에게 함락을 당하얏스니 이곳에서 시정한지 륙세백이십삼년간이엿다

부여시대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말긔로서 전투(戰鬪)가가장 심하든시대이엿슴에도 백제에서는 국력신전에 힘쓴바잇서서 예술적문물(藝術的文物)으로우리들이 상상할수도 업스리만한위대한것으로 동양(東洋)예술의원조라고 나는말하고십다

백제관(百濟館)에 진열되여잇는 적공예품은 이곳이아니면볼수업스리만치 기묘한것이만허 보는사람으로하여금 경탄의 감을주게하고잇다 지금으로부터십구년전부소산성(扶蘇山城)의월대에서발굴한금불(金佛)은 크기가불과이척오촌박게 아니되는조고마한 부처에지나지안흐나 중국남북조식을 농가할특질을 가진것이며 그외에도 파와(巴瓦)이라든가 석조(石槽)라는것은 현대에서 모방할수업스리만치 예술적가치가 풍부한것이라고 한다 부여가서는보지안흐면 아니될것이 사자루(泗泚樓)와 고란사(皐蘭寺) 백화정(百花亭) 락화암(落花岩)등인데 사자루는부소산에올라서면 바로 발견할수잇는 조고마한루각이다 그건물이라든가 설비가굉장한것이 아니지만 이루각에올라서락화암과 사자루를 나려다보면서옛날을회상하야보면 자신도모르게 이상한감정을늣기게되는다

락화암(落花岩)은 부여의자왕(義慈王)시대에 당라(唐羅)군에게 함락을당하고 왕께서는 웅진(熊津)으로 피신한뒤에 반군의습격을 견듸지못하야 후궁수백궁녀(宮女)들이 반군에게모욕을당하느니 차라리 죽엄으로써 왕님에게 몸을밧치겟다는생각으로 십중흘출하야 락화암에몸을던저 사자수 수혼이되얏스니 죽은뒤에 만약혼이잇다면 이얼마나한 스러운일이랴!

×

외로이 남아잇는
한만흔 락화암아
아릿다운수백녀인을
너는왜 부잡지못하얏나뇨

×

꿏송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궁녀들의 고결한마음
뉘 아니 추앙하랴

×

락화암 불근단풍
그들의 뿌린피가
구슬피 우는새들
수백령혼 위로하네

나는 혼자소리로 시(詩)도아니고 단문도 아닌글을 중얼거렷다 이곳은 매년봄과 가을이되면 각지에서 모여드는 수만호류람객들이 지나처 고란사(皐蘭寺)아풀지나가는 사자수(泗水)에 배띄우고 고란사도라가니 락화암 두견이울고 부소산에반달이 소삿다고 후직잇게노래부르든 곳이라고한다

우리일행은 군청에서 양십분가량휴식한뒤에 바로 장항(長項)을향하야 출발하엿다 금번대홍수로 부여와 규암(窺岩)사이에잇는 다리가 결궤되엿서사수를 배로건느게되얏다 륙지에서 자동차의『깨소링』내암새만 맛든 우리일행이 사자수를배(船)로 건너게되든 상쾌한 마음은 아무대도비교할곳이 업스리만치 유쾌하얏다 —(계속)—

舊街道路網忘却

都市計畫案中에 舊市街側住民非難高調

【平壤】 평양부 백년의 대계를 수립하는 도시계획안은 삼십일오후에 도에서 부에회부되엿는데 룡산면대타령리(龍山面大陀嶺里)구정리(九井里) 서천면내리의일부(西川面內里의一部)봉수리(鳳鏽里)당상리(堂上里)고평면내리의일부(古平面內里의一部)는계획안중에는 드러잇스나 도로교량계획안은 착수되여잇지안타 그리유는 보통강의 개수를 기다려 실시하려는것으로 개수후까지 기다리기로 하기때문이다 구시가에는 도로망이 업서서 급속히 그럴듯한도로를신설하라는것은 여론화햇고 부회에서도 건의까지 한터이지만 선교리(船橋里)의 일부를제외한 현부내에서가옥이주밀한지대에는 도로에 손을 대이지안케되엿고 이때문에 강안도로(江岸道路)와 전차로(電車路)의 중간을 꿰뚜르는도로의 관통(貫通)의계획도 중절되게되엿다 다만 대동강과보통강의합류지점을 긔점으로하고 "빼쓰"도로를 연장하여본정(本町)전차정류장에 한지해가지고 강북(江北)을 통하는 대동맥선을 계획하여 구시가의 도로망에는 전연 치중하지안흔점에대하야 비난의 소래가 자못노픈바잇다

상세한 내용은 십이일에 개최될 부회에서 문제되려니와 제이인도교가 서문통(西門通)도로와 직선되는 대동강상에 가설되는외에 두개가 더계획되여잇스며 평양부의 외곽지대에는 비교적 도로망이 완비될계획으로 되여잇다

늘기만하는不良住宅 작으마치三二六戶

躍進元山의一暗黑面

【元山】 고루거각이 한편에 즐비하게 들어서가는 반면에 다른한구석에는 원시시대의 유물그대로의 토막(土幕)과 그토막보다는 좀나흔 불량주택이 증가되여감을 볼수잇는데 이제항구도시 원산에는 불량주택과토막이 얼마나 잇는가를 원산부사회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토막생활자 칠십삼호에 인구이백륙십오인인바 작년에 비하면 호수에 잇서서 사십칠호 인구에 잇서서 일백칠십오인이 증가하얏스며 불량주택수는 삼백이십륙호에 일천삼백팔십륙인으로 이도한 작년에 비하면 백오십칠호 일천백이[illegible] 격증하얏다 이불량주택의증가는 세궁민의 증가를 의미하는것으로발전도시의 한암흑면을 여실이보여준다고한다。

雜誌"白光"發刊 來新年號부터

【平壤】 고백선행녀사(故白善行女史)의 후계사업으로 백광(白光)이라는 월간잡지를 고백녀사의 후손인 안일성(安日成)씨가 계획하고 방금준비에 분망중인데 편집은 한흑구(韓黑鷗)씨가 맛기로되엿고 일즉문사를 망라하여 집필하기로 되엿스며 신년호는 십이월하순에 출간되리라한다

그런데 림시사무소(臨時事務所)는 평양부내 박구리(朴九里)백이십이번지 고백녀사댁이라한다

그리구 백광사의주최로 이십일 하오다섯시부터 긔자릉(箕子陵) 봉황각(鳳凰閣)에서 평양문인좌담회(文人座談會)를 개최하엿는데 출석문사는 다음과갓다한다

▲梁柱東▲李泰石▲姜石▲金永石▲韓樂宋▲劉昌宣▲安日成▲韓黑鷗氏等

束手無策過冬할 萬餘의飢餓災民

秋藏이無色、救濟策또漠然 居昌郡下의災地慘跡

【居昌】 지난번 풍수재로 인명가축을 무수히 빼앗기고 가옥경지조차 모조리 류실 매몰로 이백여만원의 막대한 피해를입은 재지 경남거창(慶南居昌)에서는 차차 닥처올 북풍한설을 압둔 재민일만여명은 그전도가 막연하다는바 더욱 추수긔를당한 그들에게는 한심을 자아낼뿐이니 일즉부터 도열병(稻熱病)의 피해로 수확조차 흉작할감수라하야 그나마 실망에우는 그들은 살아갈길을 생각하고구추에 막게개인 저문날의 찬달만 바라보고 한숨만쉬이고 안저잇슬뿐이라는데 과연그들이 연명하야헤여날길이 무엇이지 미로에주린창자만 부여잡고잇는 재민의참상은져욱히 보는사람으로하여금 인정을표치안흘수업는 사선에어매여잇다한다

平元線路改測 北朝鮮進出目標

【平壤】 평양건설사무소 령목(鈴木)철도기수외 십여명은 방금평원선 순천간(順川間)실삼"키로"의선로를 다시측량하는중인데 소회록변에 실지측량하여결정한 이선의경사 오십분의일

地方人事

▲田中保太郞氏(順天鐵道事務所長)新任人事次順天支局來訪
▲大石那太郞(同庶務主任)同上
▲林太郞(同經理主任)同上
▲櫻井淸氏(同營繕主任)同上
▲田代周吉氏(同所工務主任)同上
▲松浦愼吉氏(同所運輸主任)同上
▲孫景洙氏(順川警察署警務主任)新任人事次本支局來訪
▲淸水賢一氏(安南地方課長)新任人事次 本報谷山支局來訪
▲鄭忠源氏(慶南道巡査敎習所長)同上
▲金達眞氏(前靑陽郡農會技手)論山郡廳榮轉人事次本社靑陽支局來訪
▲李始馥氏(安岳高普期成會長)十一日安岳邑自宅에서喪配

水原 毛絲編物講習會

▲時日 十一月二日부터六日間
▲場所 鐘路幼稚園講堂
◇主催 水原和信連鎖店
◇後援 朝鮮日報水原支局、東洋미싱水原支店

神戶 陸上聯合大運動會

▲時日 十一月八日(雨天順延)
▲場所 舊關西學院大運動場
◇主催 朝鮮人團體聯合
◇後援 朝鮮日報社神戶支局

牙山 全朝鮮庭球大會

▲時日 十一月三日
▲場所 京南코ー트
◇主催 溫陽體育會、相信商會
◇後援 朝鮮日報社牙山支局

車輦館 梨花專門 글리클럽 大演奏會

▲日時 十一月十一日午後七時
▲場所 車輦館公普校大講堂
◇主催 梨花女子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車輦館支局

安岳 延專巡回音樂大會

▲時日 十一月二日下午七時半
▲場所 安新普校大講堂
◇後援 朝鮮日報社安岳支局

今日 二日

午後七時半부터 白善行紀念舘에서

第一回 京城基靑 平壤奬武 對抗拳鬪

◇主催 平壤奬武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紳士高級 背廣服大安賣
今般都賣商의都賣價로 一着이라도보냄니다

◉高級大衆向 黑。紺。厚サージ背廣三ツ揃服
裏へ綾朱子 仕立へ入念仕立
A品 一着 十二圓五十錢
B品 一着 九圓五十錢

◉高級大衆向 黑。紺。セール背廣三ツ揃服
袖裏=綾絹 裏=朱子
A品 十二圓
B品 八圓

◉高級新柄 縞スコッチ背廣三ツ揃服
絹袖裏付 綾絹裏付
A品 十二圓五十錢
B品 八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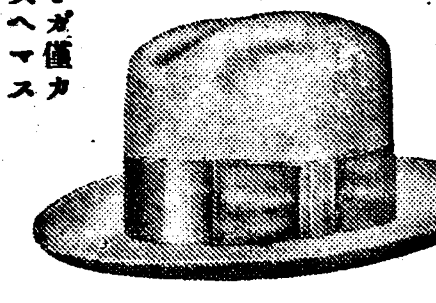
◉高級中年向 杉織メルトン背廣三ツ揃服
袖裏=絹綾 裏=綾絹
A品 十三圓五十錢
B品 九圓五十錢

◉最高級紳士向 ウーステッド背廣三ツ揃服
絹袖裏付 アルパカ裏付
A品 十六圓五十錢
B品 十四圓五十錢

◉高級青年向 詰エリ服上下組(黒綾朱子裏付)
黑。紺色厚サージ
A品 九圓六十錢
B品 六圓八十錢

◉黑紺セール地
A品 八圓十錢
B品 六圓十錢

◉米國製中古 舶來中折帽子
ベロアー 3圓90錢
フアー 3圓50錢
本品ハ米國ヨリ直輸入ノ舶來中古帽子ニテ型ハ最新流行品質純毛ノ舶來新品ナレバ二十圓內外ノ高級品
二十圓內外ノ舶來帽子ガ僅カ五分ノ一ノ値段ニテ買ヘマス



葉書로注文하시면代金引換小包로보냄니다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一九番 振替名古屋二一五一二番